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8월 석사학위논문

2013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통합 교재의 발음 기술 분석 및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 한국어 통합 교재의 발음 기술 분석 및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하관정

하  
관  
정

#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기술 분석 및 교육내용 개선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Presenting Pronunciation in Korean Integrated Textbooks  
and Educational Contents Proposal  
—focused on Chinese Korean Learners—

2013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하관정

#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기술 분석 및 교육내용 개선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옥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하관정

# 하관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2013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1.3. 선행 연구 .....	5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론적 비교 .....	10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비교 .....	10
2.2.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비교 .....	15
2.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비교 .....	17
2.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현상 비교 .....	21
3.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의 분석 .....	29
3.1. 음소체계와 음절 구조 제시 내용 비교 .....	29
3.1.1.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설명 .....	29
3.1.2. 음절구조 기술 비교 .....	34
3.1.3. 받침 기술 비교 .....	36
3.2. 음운 규칙의 제시방식 및 순서 비교 .....	40
3.2.1. 음운 규칙의 제시 방식 비교 .....	40
3.2.2.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 비교 .....	47
4. 통합교재의 발음내용 서술 및 교육내용 제시 방안 .....	51

4.1. 언어 교육의 접근방법과 발음교육의 모형 .....	51
4.2. 발음 내용 선정과 제시 순서 .....	54
4.2.1. 한국어 모음과 자음의 제시 순서 .....	55
4.2.2. 음운현상의 제시순서 .....	57
4.3. 발음 내용 및 교육 내용 제시 방안 .....	60
4.3.1. 내용 구성 .....	60
4.3.2. 실제 모형 및 발음 교육 내용 제시 .....	73
5. 결론 .....	86
참고문헌 .....	89
부록 .....	96
ABSTRACT .....	105

# 표 목 차

<표1> 한국어 교재의 유형분류 .....	3
<표2> 선정된 교재의 목록 .....	3
<표3>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음운 체계 대조 .....	11
<표4> 한·중 이중모음 대조 .....	14
<표5> 한·중 자음 음운체계 대조 .....	16
<표6> 중국어 단어를 활용한 발음 대조 .....	17
<표7>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유형 .....	19
<표8> 한국어 음운현상의 유형 .....	22
<표9> 통합교재 단모음의 제시 방법 .....	30
<표10> 통합교재 이중모음의 제시 방법 .....	31
<표11> 통합교재 자음의 제시 방법 .....	32
<표12> 통합교재의 흘받침 기술 내용 .....	37
<표13> 신라대학교(2006) 교재의 받침 기술 .....	38
<표14> 연세대학교(2007) 교재의 구성 방식 .....	45
<표15> 통합교재 음운 규칙의 첫 출현 .....	48
<표16> 통합교재에서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 .....	49
<표17> 접근 방식에 따른 발음 교육의 모형 .....	54
<표18> 통합교재 음운 규칙의 빈도수 .....	59
<표19> 통합교재의 구성 .....	62
<표20> 발음 지도의 세 단계 .....	65
<표21> 통합교재에서 발음 내용과 다른 항목의 통합방식 .....	73



# ABSTRACT

An Analysis on Presenting Pronunciation in Korean Integrated Textbooks

and Educational Contents Proposal

—focused on Chinese Korean Learners—

Kuan Jing He

Advisor : Prof. Ongmi K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urrently most beginning Korean learners are studying with integrated textbooks at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However, description of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is hardly found in integrated textbooks. Chinese learners tend to read words as spelled since they are not aware of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Thus they may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Koreans. Therefore, pronunciation training should be emphasized in the integrated textbooks to make Chinese learners pronounce words accurately.

This thesis analyze four widely used integrated Korean textbooks and

compare problems in the description of pronunciation. Based on the analysis, I present a model for the integrated Korean textbooks that reflects effective description of pronunciation and methods for teaching phonological phenomena to Chinese learners.

The thesis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content and methods of this study and review the previous approaches on related subjects.

Chapter 2 compared the phonological system, syllable structure, and phonological phenomena between Korean and Chinese to allow teachers to effectively teach pronunciation in the integrated textbooks. Chapter 4 is aimed at providing a basic data for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for Korean language instructors based on the results.

Chapter 3 examined the descriptions of pronunciation in the four integrated textbooks selected by this study.

Chapter 4 presented a new model for integrated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four step language educational method (Introduction → Description → Practice → Application) of this study after tackling the issues with description of pronunciation in each integrated textbook, as discussed in Chapter 3. The model for textbooks presented in Chapter 4 is strikingly different from previous textbooks in that it complemented the content on phonological phenomena and integrated the content into vocabulary, grammar, and exercises. In addition, methods of how instructors can teach pronunciation to Chinese learners using the phonolog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discussed in Chapter 2,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l. For example, there is a ‘l-nasalization’ phenomenon that changes /l/ to [n], which

does not occur in Chinese, despite the identical phonological environment as in Korean. If an instructor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and Korean where /l/ does not become [n] after /ŋ/ in the Chinese word *zhengli* (整理) /tʂʌŋli/, but it does occur in the Korean word ‘정류장 /čəŋ+lju+čəŋ/’, Chinese learners will avoid the mistake of reading words as spell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ir native language.

I will put it for a future study wherer this proposal becomes effective for Chinese Korean learners. Since this study focused on integrating the phonological phenomena into the integrated textbooks, a model for ‘preliminary’ textbooks dealing with phonological content was not presented. However, the model for textbooks dealing with phonological phenomena and methods of teaching phonological phenomena based on the model of this study will hopefully be helpful for Chinese learner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모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학습자이고, 둘째는 중국어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와 각종 방언을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이다.

2000년 이후부터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교재가 언어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중점을 둔 통합교재로 출간되었다<sup>1)</sup>. 대부분 통합교재는 초급 교재의 첫 부분에서 한국어 음운, 음절 구성, 받침 발음의 기본적인 음운 교육을 하고 있지만, 통합교재의 특성상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관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는 음절 경계에서 분절음에 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음운현상을 잘 모르면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김정숙(1992), 이향(2002), 왕단(2004) 등은 언어의 여러 기능을 통합으로 교육하기보다 발음만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독립된 발음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음교재는 통합교재와 달리 음운, 음절구조 등 기본적인 음운 내용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고 있다. 발음교재를 사용하면 문법이나 어휘 교육 내용에 치우쳐 소홀히 되기 쉬운 발음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백소영(2010: 120)과 허유라(2012: 364)는 독립된 발음교재는

---

1) 박영순(2003: 178)은 한국어 교재 개발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만도 270 종의 한국어교재가 개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재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발음교재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주로 통합교재로 학습하므로 발음교재로 학습할 기회는 많지 않다. 발음교재의 실용성이 높지 않으므로 통합교재에서 발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는 한국어 통합교재 기술의 문제점, 한국어 발음교재 기술의 문제점과 한국어 발음지도 방안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통합교재는 범용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이고, 한국어 발음교재는 중국어 번역본도 나와 있지 않다. 더욱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로 한국어 교사가 효과적으로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현재 한국에서 출간된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통합교재의 효과적인 발음 기술 방안이 반영된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하고, 셋째, 제시된 교재 모형에 나타난 어휘와 문법, 발음 등을 교수할 때 학습자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차이를 제시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재까지 출간된 한국어 교재는 수백 종이다. 한국어 교재의 유형에 대해서 민현식(2000: 9)은 학습자의 상황 요인을 고려하여 학습자 수준별, 학습 목적별, 수강 시간별, 연령별, 국적별로 분류하였고, 박영순(2003: 171)은 영역별, 지역별, 출신별, 언어권별, 수준별, 성격별, 위상별, 목적별로 분류하였다.

<표 2> 한국어 교재의 유형 분류(박영순: 2003: 171)

교재 유형	예
영역별	회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문법, 문화, 어휘
지역별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북미, 호주, 유럽,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기타
수준별	초급1.2, 중급1.2, 고급1.2, 최고급, 한국학 전공
성격별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용, 자습용, 교사용, 인터넷용
위상별	주교재용, 부교재용, 과제용, 평가용, 워크북
목적별 (기능별)	관광용, 교양용, 특수목적용(언론, 외교, 통상, 군사 등), 어린이용, 대학학습용 결혼이주여성용, 외국인 근로자용
언어권별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불어권, 독어권, 노어권 등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한국어 통합교재는 아래의 4가지이다.

<표 3 > 선정한 교재 목록

이름	연도	저자	출판사
한국어 1, 2	201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톡톡 튀는 한국어1, 2	2006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박이정
연세한국어1, 2	200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사
이화한국어1, 2	2010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이 교재들은 허유라·박덕유(2012: 373)에서 선정한 최근 출간된 범용 한국어 통합 교재 11가지와 민현식(2010)에서 선정한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 6가지 중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 중 중복되는 4가지이다<sup>2)</sup>.

본고에서 위의 4가지 교재를 바탕으로 총 4장을 걸쳐서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2) 본고서는 편리하기 위하여 선정한 4가지 교재는 서울대(2012), 연세대(2007), 이화대(2010), 신라대(2006)로 부르기로 한다.

한다.

2장에서는 교사가 통합교재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시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 음절구조, 음절유형, 음운현상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장항실(2008: 145~151)이 제시한 교수-학습이 필요한 음운현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초급 통합교재에서 제시해야 할 음운현상을 선정한다. 한국어의 음운현상과 동일한 환경인데도 중국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예를 한국어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에게 대조하여 교육하면 발음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국력’에서 보듯이 /C+/은 ㄹ-비음화가 일어나서 /l/이 [n]이 되어 [국녁]이 된 후 비음동화가 일어나서 [궁녁]이 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zhengli (整理) /tʂʌŋli/에서 /l/이 [n]으로 되지 않으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국력’을 철자대로 [국력]으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재에서 ‘강릉’ [강능], ‘정리’ [정니], ‘정류장’ [정뉴장] 등을 가르칠 때 중국어처럼 철자대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르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가지 통합교재가 발음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음운 부분은 단모음의 체계(10 모음 혹은 8 모음), 자음과 모음의 음가 표시(국제 음성 표기 혹은 로마자 표기), 받침의 설명(홀받침 발음, 겹받침 발음) 등을 비교하여 각 교재의 음운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 각 교재에서 음운현상을 ‘발음’ 혹은 ‘발음연습’ 항목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발음’ 항목이 없는 교재는 음운현상을 어느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지적한 각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4단계(도입→설명→연습→응용) 언어 교육에 따라 새로운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교재 모형을 제시한 후에 교사가 이 모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2장에서 논의했던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발음을 설명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 1.3. 선행연구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 연구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영어권이나 일본어권 화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전반적인 한국어 발음 지도방안-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소 체계를 비교하여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지도방안,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현상을 비교하고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음운현상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고, 둘째는, 통합교재와 발음교재의 발음 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는 노금송(2000), 박진원(2001), 장향실(2002), 이주행(2002), 최금단(2002), 곡향봉(2005), 정명숙(2008), 김길동(2008), 손경애(2009) 등이 있다.

노금송(2000)은 한국어 음소와 중국어 음소의 발음을 비교하여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두 언어의 유사 발음이 오히려 발음 오류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고, 구체적인 발음지도에서는 변이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 발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원(2001)은 한국과 중국 여성 화자의 한국어 단모음과 자음 발음의 특징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발음 오류의 원인을 찾아 한국어 발음교육에 연관이시켰다.

장향실(2002)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에 대한 대조연구와 그 변이음에 대한 음성학적 대조 분석을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행(2002)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제1단계로 음소 층위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교육한 후, 제2단계로 이 차이점에 비중을 두면서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청각 보조 자료와 실험 기기를 활용하면 학습의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곡향봉(2005)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모음, 음절구조, 장단음 및 억양, 음운현상 등에 대한 음운학적 대조 연구와 그 변이음에 관한 음성학적 대조 분석을 통해 중국어와 유사한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 발음 등 두 부분으로 나뉘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명숙(2008)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화 자료를 통해 보고된 발음 오류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음 교육은 ‘억양-음운현상-모음의 발음-자음의 발음’의 순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김길동(2008)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인지 실험과 발화 실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오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발음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음소의 발음 교수법과 음운현상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다른 논문과 달리 교수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검증을 실행했다.

손경애(2009)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 설문지 조사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실태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음소와 음운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재의 발음 기술에 관한 연구는 통합교재와 발음교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다.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에 관한 연구는 박기영(2009)과 백소영(2010)이 있다.

박기영(2009)은 음운현상이 적용된 발음의 표시 양상과 음운현상의 적용 단위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 사이의 거리감에 관한 문제와 유창성과 음운현상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음운현상의 적용 단위는 단어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음운현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그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교재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백소영(2010)은 한국어 통합교재와 발음교재의 음운현상의 제시순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교재의 바람직한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초급 통합교재와 발음교재의 음운현상을 제시순서를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쳐, 음운현상을 어떤 순서로 통합교재에서 제시하면 적절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발음교재에 관한 연구는 이향(2002), 왕단(2004), 박정은·이주희(2008), 권의현(2011), 유정(2012) 등이 있다.

이향(2002)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절구조 등의 대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측한 다음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실태까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존 발음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개발 방향과 발음교재의 실제 예까지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모형은 범용 한국어 발음교재와 별 차이가 없다.

왕단(2004)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발음』(1995)과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연수부의 『표준 한국어 발음연습』 1, 2권(1993)을 대상으로 두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개발 방안의 이론만 제시하였고 실제 교재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은·이주희(2008)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연수부의 『표준 한국어 발음연습』(1993) 1, 2권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발음』(1995), 건국대학교

『처음 만나는 한국어』(2007)의 3종의 발음교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기존의 발음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보완점을 정리하였으나, 각 교재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주희(2009)는 한국어 발음교재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분석과 선정된 몇 권의 통합교재와 발음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대한 사용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발음교재를 구성하려고 했던 점은 교재 구성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음이 장기적인 학습이 필요한데도 초급 단계의 구성에만 그치고 있다.

권의현(2011)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발음』(1995),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처음 만나는 한국어』(200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 1, 2권(2009) 총 3가지 발음교재와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의 『서강한국어 뉴시리즈』(2008)와 경희대학교 출판국의 『한국어』(2000) 2가지 통합교재의 발음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교재의 특징과 단점을 밝히고, 이에 따라 발음교재의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교재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만 하고, 구체적인 교재구성의 예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유정(2012)은 한국어 음운과 중국어의 음운을 대조한 후 중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발음을 파악하여 발음교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한국어 발음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교재의 구성방안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재라고 하였지만, 논문에서 제시한 발음교재 모형은 역시 이향(2002)은 제시한 모형과 비슷하여 범용 한국어 발음교재와 별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교재와 분리된 발음 지도 방안과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 발음 기술의 문제점, 범용 한국어 발음교

재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발음 기술을 통합교재에 통합시켜 교육하는 주장이 많지 않고 교사가 범용 한국어 교재를 이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음 기술을 통합교재에 통합하고 한국어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발음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론적 비교

한국어를 교육해 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교사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발음을 설명하면 효과적이다. 관련 단원의 내용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 음절 구조, 음절 유형, 음운현상 등을 비교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한다.

###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비교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한국어 모음은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모음은 다시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 -계 이중모음과  $w$ -이중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어 모음은 ‘한어 병음 방안’<sup>3)</sup>에 따라 단모음 6개, 복모음 13개와 비모음 8개로 구성된다. 복모음은 반모음의 수에 따라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으로 나뉜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GV, VG)으로 이루어지고, 삼중모음은 단모음과 2개의 반모음의 결합(GVG)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본고는 강옥미(2011: 117)의 한국어 10모음 체계와 뚜안무 썬(2005: 51)의 중국어 5모음 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체계 대조는 다음과 같다.

---

3) 중국어 한자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발음부호로 1955년에서 1957년까지 중국문자개혁위원회 한어병음방안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제정하였고, 1958년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공표했고, 1982년에 중국어의 국제 표준 철자로 인정되었다.

<표 4>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음운 체계 대조

혀위치 입술모양 언어 혀높이	전설				중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고	i	i	y	y	i		u	u
중	e		∅		ə	ə	o	
저	ɛ				a	a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중에 대응할 수 있는 단모음은 /i/, /y/, /u/, /a/, /ə/ 5개가 있지만, 이들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 중국어 중모음 /ə/는 (1)에서 보듯이 몇 가지 변이형을 가지므로 한국어 /ə/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ㅣ’ [i]는 중국어의 [i]보다 혀의 위치가 더 앞으로 가고 혀의 높이도 좀 더 높은 곳에서 발음하고, 한국어의 ‘ㅏ’ [a]는 중국어의 [a]보다 혀는 약간 더 뒤로 가면서 발음한다.

중국어의 중모음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1) 중국어 중모음 /ə/의 변이형(뚚안무 썬 2005: 53)

a. 순음 뒤에 [o]

/wə/      wo      ‘我’      → [wo]

/pə/      bo      ‘波’      → [po]

b. 반모음 j 뒤에 [E]

/jə/      ye      ‘夜’      → [jE]

/ljə/      lie      ‘裂’      → [ljE]

c. 반모음 j 앞에 [e]

/fəj/        *fei*        ‘飛’        →    [fej]

/kəj/        *gei*        ‘給’        →    [kej]

d. -u, -n, -ŋ 뒤에 [ə]

/kəw/        *gou*        ‘狗’        →    [kəw]

/mən/        *men*        ‘門’        →    [mən]

/mən/        *meng*       ‘夢’        →    [mən]

위에서 보듯이 중국어 중모음 /ə/의 변이형은 중국어 병음 중에 *e*, *o*와 관련이 있다. (1a)는 중국어 *o*는 순음 뒤에 나타나면 한국어 단모음 ‘ㅛ’와 비슷하게 [o]로 발음하는 경우이고, (1c)는 중국어 *e*는 반모음 *j* 앞에 나타나면 한국어 ‘개’의 발음과 비슷하게 [e]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1d)는 중국어 *o*, *e*가 -u, -n, -ŋ 뒤에 나타나면 한국어 단모음 ‘ㅓ’와 비슷하게 [ə]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단모음 ‘ㅛ, 개, ㅓ’를 가르칠 때 중국어 중모음 /ə/의 변이형 (1a, c, d)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개’ [e]보다 ‘ㅓ’ [ɛ]의 개구도가 더 크지만 젊은 세대 서울토박이들은 이 두 음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이호영 1996: 65). 따라서 굳이 외국인 학습들에게 두 음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두 단모음은 중국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모음이 없지만, 중국어 이중모음 *ai* /aj/와 비슷하게 들려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이중모음 *ai*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sup>4)</sup>

‘ㅓ’ [ɛ]는 중국어에 대응하는 음이 없고 이 음은 화자나 방언에 따라 이중모음 [we]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설동(2011: 36)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삼중모음 *uei*와 자음을 결합할 때 이중모음 *ui* [wi]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사가 이 음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오류 경향도 같이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음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본고에서는 한자 병음은 이태릭체로 표기하고, IPA는 [ ]나 / /는 안에 표기한다.

‘一’도 중국어에서 해당하는 음이 없지만 모음 *i*와 *zh, ch, sh, r*를 결합하여 *zhi, chi, shi, ri*를 발음할 때 운모와 비슷하다.<sup>5)</sup> 한국어 교사가 一를 설명할 때는 *i*의 변이음을 참조하면 학습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 /j, w, ɥ/의 종류에 따라 j-계이중모음, w-계이중모음, ɥ-계이중모음으로 구분된다. j-계이중모음은 *ie /jɛ/, ei /je/, ia /ja/, ai /aj/*, w-계이중모음 *uo /wɔ/, ua /wa/, ao /ɔw/, ou /ɔw/*, ɥ-계이중모음은 *üe /ɥe/*가 있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 없는 삼중모음 *uai /waj/, uei /wej/, iao /jaw/, iou /jow/*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모음 체계 대조는 다음과 같다.

---

5) 중국어 모음 *i*는 자음 *z, c, s*, 뒤에 오면 [ɨ]로 발음하며, 자음 *zh, ch, sh, r* 뒤에 오면 [i]로 발음한다.(<http://en.wikipedia.org>)



<표 5> 한·중 이중모음 대조

종류		G+V(상승이중모음)			V+G(하강이중모음)		
		전설	중설	후설	전설	중설	후설
높이 반모음 언어	j계열	한			π /ju/		ㄷ /i/
		중					
	w계열	한			ㄹ /jo/		
		중					
	ɥ계열	한					
		중				üe /ɥe/	
중 모 음	j계열	한	꺨 /je/	ㄷ /jə/			
		중	ie /jɛ/			ei /ej/	
	w계열	한	꺨 /we/	ㄷ /wə/			ou /ɔw/
		중		uo /wɔ/			
저 모 음	j계열	한	꺨 /jɛ/	ㅍ /ja/			
		중		ia /ja/		ai /aj/	
	w계열	한	꺨 /wɛ/	ㅍ /wa/			
		중		ua /wa/		ao /ɔw/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어 이중모음 ‘꺨’ /je/, ‘ㅍ’ /ja/, ‘ㄷ’ /wə/, ‘ㅍ’ /wa/는 중국어에 대응하는 이중모음이 있으므로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이중 모음을 설명할 때 중국어의 이중모음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π’ /ju/, ‘ㄹ’ /jo/, ‘ㄷ’ /jə/, ‘꺨’ /we/, ‘꺨’ /jɛ/, ‘꺨’ /wɛ/는 중국어 이중모음에서 대응하는 음이 없으므로 발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삼중모음 *uai* /waj/, *uei* /wej/, *iao* /jaw/, *iou* /jow/가 있다. 중국어의 삼중모음 중 *uei* /wej/와 *iou* /jow/는 홀로 발음할 때는 (2a)와 (2c)처럼 모음 *e*와 *o*가 다 실현되지만 다른 자음과 결합할 때는 (2b)와 (2d)처럼

중모음 /e, o/가 뒤의 반모음의 혀의 높이에 동화되어 고모음 [i, u]로 실현되고, 뒤의 반모음 [j, w]가 탈락한다.

- (2) a. *uei* /wej/ ‘微’ → [wej]  
 b. *gui* /k+wej/ ‘歸’ → [kwi]  
 c. *iou* /jow/ ‘有’ → [jow]  
 d. *xiu* /ɛ+jow/ ‘修’ → [ɛju]

결국은 자음과 결합할 때 삼중모음 *uei*와 *iou*는 이중모음 *ui* 와 *iu*와 다름없고 한국어의 이중모음 ‘기’ /wi/와 ‘구’ /ju/와 비슷하게 발음하게 된다. 또한 *iao* /jaw/나 *uai* /waj/가 삼중모음으로 실현되지만, 실제 발음할 때 한국어의 ‘교’ /jo/나 ‘내’ /wɛ/와 약간 비슷하므로 교사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한국어의 ‘교’ /jo/나 ‘내’ /wɛ/를 중국어의 *iao* /jaw/나 *uai* /waj/로 발음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 2.2.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비교

한국어의 자음은 19개이고, 중국어의 자음은 21개이다. 단순히 그 숫자만으로 볼 때는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자음을 학습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언어는 아래에서 보듯이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기류 유무, 긴장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체계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6 > 한·중 자음 음운 체계 대조

조음위치 언어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설첨전음)		권설음 (설첨후음)		경구개음 (설면음)		연구개음 (설근음)		후음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파열음	평음	p	p			t	t					k	k		
	경음	p'				t'						k'			
	격음	p <sup>h</sup>	p <sup>h</sup>			t <sup>h</sup>	t <sup>h</sup>					k <sup>h</sup>	k <sup>h</sup>		
파찰음	평음						ts		ts	tʃ'	ts				
	경음									tʃ'					
	격음						ts <sup>h</sup>		ts <sup>h</sup>	tʃ <sup>h</sup>	ts <sup>h</sup>				
마찰음	평음			f	s	s		ʃ		ç				h	x
	경음				s'										
	유성							ʒ							
비음	m	m			n	n					ŋ	ŋ			
유음					l	l		r							

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중국어의 자음체계는 크게 다르다. 한국어는 파열음과 파찰음은 ‘평음-경음-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보이고, 마찰음은 ‘평음-경음’으로 대립하지만, 중국어는 모두 ‘유기음-무기음’의 이지적 대립을 보인다. 조음 위치에서는 중국어는 한국어에 없는 순치음과 권설음이 있다.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비음, 성문마찰음과 중국어의 비음, 성문마찰음은 일대일 대응이 된다고 언급하고, 비음 ‘ㄴ, ㄹ, ㅇ’과 성문 마찰음 ‘ㅎ’ /h/는 중국어 비음 n, m, ng /n, m, ŋ/과 성문 마찰음 h /h/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자음 설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기류의 강약이다. 한국어의 유기음과 중국어의 송기음은 일대일 대응이 되지만, 한국어의 평음, 경음과 중국어의 무기음은 일대일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즉 ‘ㅂ, ㅃ’ /p, p’/, ‘ㄷ, ㄸ’ /t, t’/, ‘ㄱ, ㄲ’ /k, k’/, ‘ㅅ-ㅆ’ /s, s’/, ‘ㅈ, ㅉ’ /ts, ts’/의 구별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2010)은 중국어 성조를 이용하여 한국어 평음과 경음의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어 성조와 한국어 평음과 경음의 대조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표 7> 중국어 단어를 활용한 발음 대조표 (김지훈 201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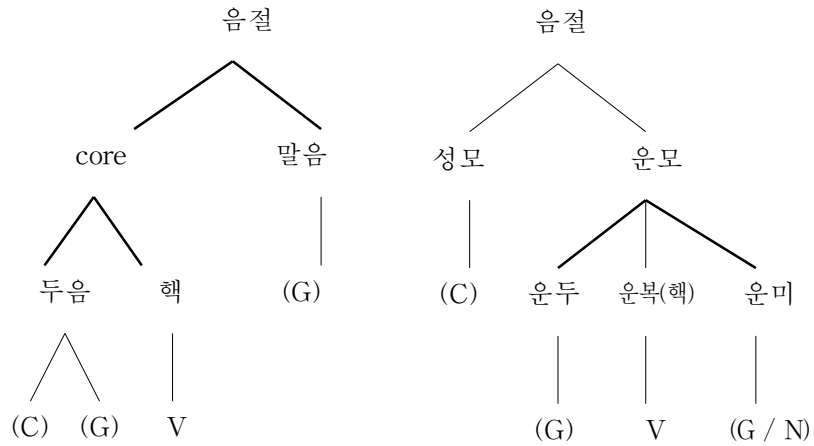
	b+a	ㅂ/ㅃ+ㅏ	d+a	ㄷ/ㄸ+ㅏ	g+a/ai	ㄱ/ㅋ+ㅏ	s+a	ㅅ/ㅆ+ㅏ	j+i	ㅈ/ㅊ+ㅣ
1성	八	빠	答	따	咖喱	까	仁	싸	机	찌
2성	拔	바	達	다	軋	가			集	지
3성	把	바	打	다	改	가(이)	撒	사	几	지
4성	爸	빠	大	따	盖	까(이)	薩	싸	寄	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평음은 중국어 2성이나 3성, 경음은 1성이나 4성을 발화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평음과 경음 그리고 경음화 현상의 발음 교육 내용을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다.

### 2.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비교

한국어 음절은 ‘(두음)+핵+(말음)’의 구조를 가진다. 두음과 말음에 오는 자음이나 반모음이 없어도 음절은 발음되지만, 핵인 모음이 없으면 음절은 발음되지 못한다.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자음)와 운모(모음)로 구성한다. 운모 부분은 운두, 운복, 운미로 나누어지고, 운두에 반모음만 올 수 있고 운복에 단모음만 올 수 있으며 운미에는 반모음과 비음이 올 수 있다. 한국어와 똑같이 모음인 운복이 없으면 발음하지 못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a. 한국어 음절구조

b. 중국어 음절구조

(C: 자음, V: 모음, G: 반모음 N: 비운미)

<그림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 비교(김길동 2008: 41)

위 그림에서 보듯이 모음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에서 핵의 역할을 하고, 자음은 수의적이다. 중국어는 음절 말에 비자음 [n, ŋ] 2개만 발음되지만, 한국어는 음절 말에 자음 [k, p, t, n, m, l, ŋ]의 7개가 발음되므로, 중국인 한국어학습자가 한국어 음절말 자음(받침)을 발음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받침 발음을 설명할 때는 [n, ŋ] 이외의 음절말 [k, p, t, n, l] 발음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절구조에 나타나는 말음과 반모음의 유무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유형은 <표 7>과 같이 정리한다.<sup>6)</sup>

6) 장모음은 음절유형에서 생략했다.

<표 7>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유형

	한국어		중국어	
개 음 절	V	아, 어, 오, 우	V	一 <i>yi</i> /i/
	GV	야, 여, 와, 워	GV	夜 <i>ye</i> /je/
	VG	의	GVG	要 <i>yao</i> /jaw/
	CV	자, 나, 너, 가,	CV	普 <i>pu</i> /p <sup>h</sup> u/
	CGV	교, 벼, 뇨	CGV	國 <i>guo</i> /kwo/
	CVG	문의[늑], 빛의[취]	CGVG	表 <i>biao</i> /pjaw/
폐 음 절	VC	옷, 안, 입,	VC(VN)	音 <i>yin</i> /in/
	GVC	약, 욱, 엇	GVC(GVN)	元 <i>yuan</i> /jen/
	CVC	집, 죽, 낫	CVN	生 <i>sheng</i> /səŋ/
	CGVC	별, 광, 격	CGVN	件 <i>jian</i> /təjan/

중국어는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n, ŋ] 두 개지만, 한국어는 음절 말에 7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한국어는 음절 말에서 나타나는 자음의 성격과 수에 따라 표면에서 달리 실현된다.

첫째, 음절 말에 오는 유기음과 경음은 같은 조음위치의 평불파음으로 중화되는 말음중화 현상이 일어난다(강옥미 2011: 363~364). 양순파열음 /ㅍ, ㅂ, ㅍ/는 음절 말에서 [p̚]로, 설정음 /ㄷ, ㄸ, ㅌ, ㅌ, ㅌ, ㅌ, ㅌ, ㅌ/는 [t̚]로,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ㅋ/는 [k̚]로 중화된다.<sup>7)</sup>

둘째, 자음군 C<sub>i</sub>C<sub>j</sub>로 끝난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경우 선행 형태소의 자음군 C<sub>i</sub>C<sub>j</sub>는 다 발음된다. 선행 자음 C<sub>i</sub>는 앞 형태소의 음절 말 자음으로, 후행 자음 C<sub>j</sub>는 뒤 형태소의 음절 초 자음으로 발음된다.

7) 음절 말에 나타나는 자음군(C<sub>i</sub>C<sub>j</sub>)은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C<sub>i</sub> 또는 C<sub>j</sub>로 단순화되므로 음절 구조 제약을 제시하고 나서 논의하고자 한다.

- (3) 녀이[녁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굶이[골씨]  
 활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 : 씨]

셋째, 자음군 C<sub>i</sub>C<sub>j</sub>로 끝난 형태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한국어는 음절 말에 자음 하나만 허용하므로 자음 하나를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4a)와 (4c 붙임)에서 ‘ㄱ, ㄴ, ㄷ, ㅌ, ㅍ, ㅂ, ㄴ, ㄹ’처럼 겹자음 중의 앞 자음 C<sub>i</sub>만을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4b)에서 ‘ㄹ, ㄷ’처럼 뒤 자음 C<sub>j</sub>만을 발음을 경우도 있고, ‘ㄹ, ㄹ’은 단어에 따라 C<sub>i</sub>나 C<sub>j</sub>를 발음한다.

(4) 표준발음법 제4장 제10, 11, 12항

- a.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ㅍ]으로 발음한다.

녘[녁] 녘과[녁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늙다[널따]  
 외곶[외골] 활다[할따] 값[갑] 없다[업 : 따]

다만, ‘뱌-’은 자음 앞에서 [뱌]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뱌다[뱌 : 따]                      뱌소[뱌 : 쏘]                      뱌지[뱌 : 씨]  
 뱌는[뱌 : 는 → 뱌 : 는]      뱌게[뱌 : 께]                      뱌고[뱌 : 꼬]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 b. 겹받침 ‘ㄹ, ㄹ,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 ㄷ, ㅌ]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과]                      맑다[막따]                      늣지[늣씨]  
 삼[삼 : ]      젊다[점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게]      물고[물꼬]      엇거나[얼거나]

c.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붙임] ‘ㄴㅎ, ㄹ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네[안네]      앓는[안는]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

넷째, ‘ㅃ, ㅌ, ㅍ, ㅎ’을 제외한 다른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가 오면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을 연음이나 재음절화라고도 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5) 목이[모기]	밖에[바게]	부엌으로[부어크로]	밥을[바블]
숲으로[수프로]	날알[나달]	밭에[바테]	옷을[오슬]
있음[이썸]	낮에[나제]	낮이[나치]	밤에[바메]
산이[사니]	물이[무리]		

## 2.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현상 비교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주로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운현상 항목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의 음운현상의 종류를 살펴보자.

신지영·차재은(2003)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다음 <표 8>과 같다.

8) 한국어에서 ‘ㅃ, ㅌ, ㅍ’으로 끝난 글자가 없고 ‘ㅎ’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이 오면 ‘ㅎ’ 탈락하기 때문이다.



<표 8> 한국어 음운현상의 유형(신지영 · 차재은 2003: 237)

큰 분류	음운현상	하위분류	단어용례
대치	평 폐쇄음화 (말음중화)	①격음 → 폐쇄음화	부엌 → 부억
		경음 → 폐쇄음화	낙다 → 낙타 → 낙따
		마찰음 → 폐쇄음화	낫 → 날
		파찰음 → 폐쇄음화	낫 → 날
		/ㅎ/ → 폐쇄음화	놓는 → 논는 → 논는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국물 → 궁물
		설측음의 비음화<1>	의견란 → 의견난
		설측음의 비음화<2>	락원 → 낙원
	변자음화	양순음화	신문 → 심문
		연구개음화	감기 → 강기
	경음화	장애음 뒤 경음화	국도 → 국또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담고 → 담꼬
		관형형 어미(-을) 뒤 경음화	갈 수 → 갈쑤
		한자어 경음화	골동품 → 골똥품
	구개음화		굳이 → 구지
	탈락	자음군 단순화	치경음 탈락
비공명음 탈락			훈고 → 훈꼬
동일 조음위치 장애음 탈락			식칼 → 시칼
			낫도 → 날도 → 나또
/ㅎ/탈락		활용에서	놓아 → 노아
		공명음 사이에서	대학 → 대악
/ㄴ/탈락			여자 → 여자
/ㅡ/탈락			가+으니 → 가니
/ㅏ, ㅑ/ 탈락		가+아 → 가	
/j/ 탈락		지+어 → 저 → 저	
축약	유기음화	/ㅎ/와 평음 연쇄	놓+고 → 노코
		평음과 /ㅎ/의 연쇄	입학 → 이팍
	활음화	/j/ 활음화	기+어 → 겨
		/w/활음화	보+아 → 봐

첨가	/ㄷ/첨가		위+어른 → 위더른
	/ㄴ/첨가		콩엿 → 콩년

위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중국어에 비해 많고 하위분류도 대치, 탈락, 축약, 첨가로 구분된다. 장향실(2008: 145)은 한국어 음운현상 전체를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게는 모두 가르쳐야 하지만,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모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장향실(2008: 145~150)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이 필요한 음운현상의 두 가지 조건<sup>9)</sup>과 교수-학습이 불필요한 음운현상의 4가지 조건<sup>10)</sup>을 제시하였고, 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의 필요한 규칙과 불필요한 규칙을 정하였다.

(6) 교수-학습이 필요한 규칙과 불필요한 규칙(장향실 2008: 145~151).

a. 교수-학습이 필요한 규칙

평폐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설측음의 비음화<1>, 설측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탈락, 유기음화,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관형형(-을) 뒤의 경음화, 구개음화, 연음

b. 교수-학습이 불필요한 규칙

설측음의 비음화<2>, /ㄴ/탈락. /-/탈락, /ㅏ, ㅑ/탈락, /j/탈락, /j/활음화, /w/활음화,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단어 내부 유성음 사이에서 /ㅎ/탈

9) 첫째는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들이고, 둘째는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규칙이지만 그 정보가 이미 배운 문법이면서 일정 환경에서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우다(장향실 2008: 145).

10) 첫째는 음운 변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규칙들이고, 둘째는 수의적인 규칙들이고, 셋째는 학습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론적 정보를 요구하는 규칙들이며, 넷째는 음운현상의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없어 공기적 음운현상으로 기술할 수 없는 규칙들이다(장향실 2008: 148-150).

락, /ㄷ/첨가, /ㄴ/첨가

그러나 표준 발음법 7장 30항에 따라 장애음 ‘ㄱ, ㄷ, ㅂ, ㅅ, ㅈ’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 이들 자음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빨랫돌’은 [빨랫돌]로 발음해도 되고, [빨랜뜰]로 발음해도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동일 조음위치 장애음 탈락’은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규칙으로 분석하므로 교수-학습에서 불필요한 규칙으로 간주한다.<sup>11)</sup> 또한 ‘ㄴ-첨가’는 명사 합성어에서 앞 단어에 받침이 있고 뒤 단어가 /i/나 /j/로 시작하면 그 사이에 ‘ㄴ’을 삽입한다. 즉 ‘ㄴ-첨가’ 규칙은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ㄴ-첨가’를 보여주는 ‘무슨 일, 무슨 요일, 강남역’ 등 단어는 초급 교재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이므로 본고에서는 ‘ㄴ-첨가’ 규칙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규칙으로 분석한다. ‘ㅎ-탈락’ 현상은 용언에서 공명음 사이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초급 통합교재에서 ‘좋아하다, 싫어하다.’ 등 ‘ㅎ-탈락’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본고는 통합교재에서 제시해야 하는 음운현상으로 간주한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음운현상을 다음 12가지로 선정하였다.

(7) 한국어 교재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음운현상

평폐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설측음의 비음화<1>, 설측음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유기음화, ㄴ-첨가, 장애음 뒤에 경음화,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관형형(-을) 뒤의 경음화, 구개음화, 연음화<sup>12)</sup>

11) 장향실(2008: 148)과 배주채(2003: 196)는 동일 조음위치의 장애음 탈락하는 현상을 현실 발음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표준 발음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본고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장애음의 비음화’는 ‘비음동화’로, ‘설측음의 비음화’는 ‘ㄹ-비음화’로, ‘장애음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1’로, ‘비음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2’로, ‘관형형

위에서 선정된 12 가지 음운현상을 본고에서 살펴볼 4가지 통합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2.2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동화, 이화, 융합, 첨가, 탈락, 대치, 약화 등 여러 가지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중국어는 각 형태소가 단음절로 독립성이 가지기 때문에 여러 음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더 효과적인 음운현상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현상을 비교하여 연관성이 있는 음운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위치동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sup>13)</sup> 중국어에서 음절말 치경비음 /n/이 순음 /p, p<sup>h</sup>, m, f/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양순비음 [m]로 실현되고(김길동, 2008: 49), 선행음절말의 치경비음 /n/이 후행음절의 두음에 오는 연구개음 /g, k<sup>h</sup>, x/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연구개비음 [ŋ]으로 실현된다(최향란, 2011: 31).

- |        |         |                         |                                      |      |                        |                                     |
|--------|---------|-------------------------|--------------------------------------|------|------------------------|-------------------------------------|
| (8) a. | kanbing | /k <sup>h</sup> an+piŋ/ | ‘看病’                                 | →    | [k <sup>h</sup> ampiŋ] |                                     |
|        | b.      | anpai                   | /an+p <sup>h</sup> ai/               | ‘安排’ | →                      | [ampi <sup>h</sup> ai]              |
|        | c.      | guanmen                 | /kwan+mən/                           | ‘關門’ | →                      | [kwammən]                           |
| (9) a. | sange   | /san+gə/                | ‘三个’                                 | →    | [saŋgə]                |                                     |
|        | b.      | henhao                  | /hən+xaw/                            | ‘很好’ | →                      | [həŋhaw] <sup>14)</sup>             |
|        | c.      | kanke                   | /k <sup>h</sup> an+k <sup>h</sup> ə/ | ‘坎坷’ | →                      | [k <sup>h</sup> aŋk <sup>h</sup> ə] |

(8a)는 /n/이 /p/앞에서 [m]로 실현되고, (8b)는 /n/이 /p<sup>h</sup>/앞에서 [m]로 실현 되

(-을)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3’로 부르기로 한다.

13) 한국어나 중국어나 다 마찬가지로 위치동화는 구어에서만 인정하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다.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항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발음해야 한다.

14) 중국어 성모 h는 IPA에 따라 연구개 마찰음 /x/로 표시하고 실제 발음은 [h]로 발음한다.

고, (8c)는 /n/이 /m/앞에서 양순비음 [m]로 실현된다. (9a)는 말음 /n/이 후행음절의 두음 /g/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연구개음 [ŋ]로 실현되고, (9b)는 /n/이 연구개마찰음 /h/ 앞에서 [ŋ]으로, (9c)는 /n/이 /kʰ/앞에서 동화되어 [ŋ]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위치동화는 중국어의 위치동화보다 일어나는 환경이 더 다양하다. 중국어는 음절 말 자음 /n/ 밖에 올 수 없지만, 한국어는 음절말에 /s, čʰ, č, p, pʰ, n, t, tʰ, m, k, kʰ/ 등 여러 자음이 올 수 있다(강옥미 2011: 465~468).

- |         |             |               |        |               |              |
|---------|-------------|---------------|--------|---------------|--------------|
| (10) a. | /tʰit+či/   | ‘듣지’          | →      | [tiččʰ]       |              |
|         | b.          | /təs+čəkoli/  | ‘덧저고리’ | →             | [təččʰəgori] |
| (11) a. | /on+pam/    | ‘온밤’          | →      | [ombam]       |              |
|         | b.          | /yəs+po+ta/   | ‘옛보다’  | →             | [yəpʰpʰoda]  |
|         | c.          | /kʰočʰ+ patʰ/ | ‘꽃받’   | →             | [kʰopʰpatʰ]  |
|         | d.          | /mač+palam/   | ‘맞바람’  | →             | [mapʰpʰaram] |
| (12) a. | /os+kəli/   | ‘옷걸이’         | →      | [okʰkʰəli]    |              |
|         | b.          | /nan+kan/     | ‘난간’   | →             | [nanɡan]     |
|         | c.          | /myəčʰ+kʰz/   | ‘몇 개’  | →             | [myəkʰkʰz]   |
|         | d.          | /nič+kai/     | ‘늦가을’  | →             | [nikʰkʰai]   |
| (13) a. | /pap+kilis/ | ‘밥그릇’         | →      | [pakʰkʰiritʰ] |              |
|         | b.          | /čʰam+kilim/  | ‘참기름’  | →             | [čʰaŋɡirim]  |

둘째, 중국어도 한국어와 같이 탈락현상이 존재한다. 중국어의 탈락 현상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음절 탈락으로 나눌 수 있다(곡향봉, 2005: 30).

- |         |        |                  |      |   |         |
|---------|--------|------------------|------|---|---------|
| (14) a. | 자음 탈락: | zha lan /sa+lan/ | ‘柵欄’ | → | [sa la] |
|---------|--------|------------------|------|---|---------|

b. 모음 탈락: xi huan /ei+huan/ ‘喜歡’ → [ei han]

c. 음절 탈락: bu zhi dao /pu+ʔi+tau/ ‘不知道’ → [pu tau]

중국어는 (14a)의 비운미의 탈락, (14b)의 모음의 탈락, (14c)의 음절의 탈락이 수의적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ㅎ-탈락’은 명사일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탈락하며, 동사일 경우는 필수적으로 탈락한다(강옥미 2011: 515~516).

(15) a. /ma+hin/ ‘마흔’ → [main]

b. /a+hop/ ‘아홉’ → [aop̚]

(16) a. /čoh+a/ ‘좋아’ → [čoa]

b. /noh+a/ ‘놓아’ → [noa]

셋째, 중국어 어기조사 ‘啊’ /a/는 단모음<sup>15)</sup>으로 시작되는 음절이기 때문에 앞 음절에 따라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음을 첨가한 후의 해당하는 글자를 대응하기도 한다. ‘啊’ /a/의 특수한 첨가현상은 다음과 같다.

(17) a. kanxia /kʰan+ei+a/ ‘看戲啊’ → [kʰaŋcija] (看戲呀)

b. henhaoa /hən+haw+a/ ‘很好啊’ → [hənhawwa] (哇)

c. youa /jow+a/ ‘有啊’ → [jowwa] (哇)

d. tiana /tʰian+a/ ‘天啊’ → [tʰianna] (哪)

e. xianga /ciɑŋ+a/ ‘香啊’ → [ciɑŋŋa] (啊)

15) 중국어에서 초성이 없는 음절을 영성모(zero-initial) 혹은 무성모라고 한다. 순모음은 단모음 하나만 있는 음절을 가리킨다. 중국어에서는 연음되는 영성모는 어기조사 ‘啊’ /a/뿐이다.

범어적으로 음절 초에는 자음이 있는 음절이 최적 음절이다. 강석진(2010: 12)은 (17a, b, c)에서 중국어의 선행 음절이 반모음으로 끝나고 후행 음절이 영성모 /a/ 일 경우 반모음 /j, w/를 첨가하고, (17d, e)에서 선행 음절이 비운미(Vn, Vŋ)이고 후행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 /n/이나 /ŋ/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강석진(2010: 10)은 이를 연음화(連音化)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연음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앞 음절 말의 자음이 뒤 음절의 두음에서 발음되는 재음절화를 말한다(/VC+V/ → [V.CV]). 하지만 중국어의 비운미 /n/와 /ŋ/는 모음의 일부분이므로 분리되지 않아서 한국어처럼 연음 또는 재음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Vn+V/이 [V.nV]으로 연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석진이 사용한 ‘연음’이 한국어의 연음과 성격이 다르므로 첨가 현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어도 명사합성어에서 선행 어근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단어가 ‘이, 야, 여, 요, 유, 애, 예’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sup>16)</sup>

- (18) a. /musin+il/            ‘무슨 일’    → [musinnil]  
       b. /sinhun+jəhiŋ/       ‘신혼여행’ → [sinhunŋjəhiŋ]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다양한 음운변동 현상에 비해 중국어의 음운현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의적이다. 위에 언급한 중국어의 음운현상은 한어병음방안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모두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발음도 철자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음운현상의 설명은 더욱 중요하다.

16) 김정수(1989: 18)는 사잇소리 /ㄴ/은 그 뒤에 오는 /i/나 /j/와 조음점이 매우 가까운 닿소리(자음)로서 사잇소리의 대표라 할 목청 터짐소리(파열음)/ ㅎ/[ʔ]가 환경을 따라 동화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엄태수 2010: 10 재인용).

### 3.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의 분석

통합교재는 발음교재처럼 음운, 음운 변동, 운소 3부분으로 나뉘어 기술하지 않고, 음운 변동과 운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고, 발음 교육의 내용은 주로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국한하고 있다. 통합교재에서 음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나 ‘예비편’이라는 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주로 한국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통합교재에서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제시, 음절 구조, 받침의 제시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통합교재에서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3.1. 음소체계와 음절 구조 제시 내용의 비교

##### 3.1.1.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설명

이 절에서는 선정한 4가지의 통합교재에서 자음과 모음의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교재는 발음교재와 달리 발음뿐만 아니라 각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 쓰는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있다. 각 통합교재의 자음과 모음 제시의 차이점은 주로 단모음 체계와 각 자음과 모음의 음가 표시에서 보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모음 → 이중모음 → 자음의 순서를 취하여 각 통합교재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9 > 통합교재 단모음의 제시 방법

대학 표기 모음	서울대(2012)	연세대(2007)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
	국제음성표기(IPA)			문화관광부(2000) 로마자 표기법
ㅏ	[a]	[a]	[a]	[a]
ㅓ	[æ]	[ɛ]	[ɛ]	[æ]
ㅗ	[ə]	[ə]	[ə]	[eo]
ㅜ	[e]	[e]	[e]	[e]
ㅡ	[o]	[o]	[o]	[o]
ㅛ	[ö/we]	ø [we]		
ㅠ	[u]	[u]	[u]	[u]
ㅟ	[ü/wi]	[y/wi]		
ㅣ	[i]	[i]	[i]	[eu]
ㅣ	[i]	[i]	[i]	[i]

서울대(2012)와 연세대(2007)은 10모음 체계를 취하고,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은 8모음 체계를 취하고 있다. 서울대(2012)는 모음 ‘외, 위’를 단모음 [ö]와 [ü]와, 이중모음 [we]와 [wi]로 구별하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달리 실현되는지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다.<sup>17)</sup> ‘ㅓ’를 서울대(2012)와 신라대(2006)은 [æ]로 표기하고 있고, 연세대(2007)와 이화여대(2010)은 [ɛ]로 표기하고 있다.<sup>18)</sup>

각 교재가 제시하는 이중모음의 음가는 다음과 같다.

17) 허웅(1985: 152)은 음절 초에 자음이 있는 ‘피, 쥐, 뒤’에서 ‘기, 니’는 단모음 /ü/와 /ö/로, ‘외국, 외아들, 위반, 더위’에서의 ‘기, 니’는 이중모음/wi/와 /we/로 분석하고 있다.

18) 음성학적으로 한국어의 ‘ㅓ’는 [ɛ]로 발음되므로, IPA에서는 /ɛ/를 전설중모음으로 분류하지만, 한국어음운론 학자들은 한국어의 경우 전설저모음으로 분류한다.

<표 10 > 통합교재의 이중모음 제시 방법

대학 표기 이중모음	서울대(2012)	연세대(2007)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
	국제음성표기(IPA)			문화관광부(2000) 로마자 표기법
ㅏ	[ja]	[ja]	[ja]	[ya]
ㅑ	[jæ]	[jɛ]	[jɛ]	[yæ]
ㅓ	[iə]	[jə]	[jə]	[yeo]
ㅕ	[je]	[je]	[je]	[ye]
ㅗ	[wa]	[wa]	[wa]	[wa]
ㅛ	[wæ]	[wɛ]	[wɛ]	[oɛ]
ㅜ			[we]	[wae]
ㅠ	[jo]	[jo]	[jo]	[yo]
ㅠ	[wə]	[wo]	[wə]	[wo]
ㅡ	[we]	[we]	[wø]	[we]
ㅟ	[ju]	[ju]	[ju]	[yu]
ㅣ			[wi]	[wi]
ㅣ	[ii]	[ii]	[ii]	[ui]

이화여대(2010)은 ‘ㅜ, ㅠ’를 이중모음 [we]와 [wi]로 표시하고 있고, 신라대(2006)도 ‘ㅜ, ㅠ’를 이중모음 [wae]와 [wi]로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통합교재가 제시하는 자음의 음가는 다음과 같다.

<표 11 > 통합교재의 자음 제시 방법

대학 표기 자음	서울대(2012)	연세대(2007)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
	국제음성표기(IPA)	매쿤 라이샤워 표기법(1984)	표기법(1984)	문화관광부(2000) 로마자 표기법
ㄱ	[k]	[k]	[k]	[g, k]
ㄴ	[n]	[n]	[n]	[n]
ㄷ	[t]	[t]	[t]	[d, t]
ㄹ	[l]	[l]	[l]	[r, l]
ㅁ	[m]	[m]	[m]	[m]
ㅂ	[p]	[p]	[p]	[b, p]
ㅅ	[s]	[s]	[s]	[s]
ㅇ	[ŋ]			[ng]
ㅈ	[c]	[ch]	[ch]	[j]
ㅊ	[ch]	[ch']	[ch']	[ch]
ㅋ	[k <sup>h</sup> ]	[k']	[k']	[k]
ㅌ	[t <sup>h</sup> ]	[t']	[t']	[t]
ㅍ	[p <sup>h</sup> ]	[p']	[p']	[p]
ㅎ	[h]	[h]	[h]	[h]
ㄱㄱ	[k']		[kk]*	[kk]
ㄷㄷ	[t']		[tt]*	[tt]
ㅂㅂ	[p']		[pp]*	[pp]
ㅅㅅ	[s']		[ss]*	[ss]
ㅈㅈ	[c']		[jj]*	[jj]

\*는 문화관광부(2000) 로마자 표기법

연세대(2007)와 이화여대(2010)은 자음 ‘ㅇ’의 음가를 표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울대(2012)는 모든 자음을 IPA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있으며, 연세대(2007)은 모든 자음을 매쿤 라이샤워 표기법(1984)에 따라 표시하고 있고, 이화여대(2010)은

자음(ㄱ-ㅎ)은 매쿤 라이샤워 표기법(1984)을 따라 경음(ㄱ1-ㅈ)은 문화관광부(2000)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sup>19)</sup> 신라대(2006)은 모든 자음을 문화관광부(2000)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로마자 표기법(2000)은 한국어 자음의 유·무성을 구별하지 않고 ‘ㄱ, ㄷ, ㅂ, ㅈ’를 ‘g, d, b, j’로 표기하고 있다. 강희숙(2010: 507)에서는 한국어 자음의 유·무성을 구별하여 무성음의 환경에서 ‘k, t, p, ch’로, 유성음의 환경에서는 ‘g, d, b, j’로 표기하면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음절 말 위치에 나타나는 ‘ㄱ, ㄷ, ㅂ’은 ‘g, d, b’가 아니라 유기음 ‘ㄱ, ㄷ, ㅂ’와 같이 ‘k, t, p’로 표기하고 있다. 강희숙(2010: 508)에서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한국어 화자가 음절 초 위치에 있는 자음과 음절말 위치에 있는 자음의 음성적 차이점을 비교적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제시할 때 로마자 표기법보다 국제 음성표기법(IPA)이 더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선정된 통합교재 4가지의 한국어 자음과 모음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통합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설명할 때는 모두 표의 형식으로 자음과 모음의 이름, 발음, 글자 쓰는 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각 자음과 모음의 조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발음기관도가 제시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둘째, 한 교재에서 여러가지 표기법을 취하여 일관성이 없다. 연세대(2007) 교재

---

19)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3가지가 있다.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동아시아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예일 로마자 표기법’(Yale Romanization)이 있고, 1937년 미국인 조지 매쿤과 에드윈 라이샤워가 만든 매쿤-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omanization)을 한국에서 약간 수정하여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하였고, 문화관광부가 2000년 7월 7일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IPA로 표기하고, 자음은 매쿤 라이샤워 표기법(1984)을 취하고 있다. 이화여대(2010)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IPA로 표기하고, 자음(ㄱ-ㅎ) 매쿤 라이샤워 표기법(1984)으로 표기하고 있고, 경음은 문화관광부(2000)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 3.1.2. 음절구조 기술 비교

자음과 모음을 다 제시한 다음에 각 교재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 즉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sup>20)</sup>

연세대(2007: 3)에서 음절 구조와 관련된 설명은 (19)와 같다.

(19)	V	ㅇ+ㅏ	→	아
		CV	ㅂ+ㅣ	→ 비
		CVC	ㅁ+ㅏ+ㄹ	→ 말

언어학 기초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이 V와 C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으므로 이런 표 밑에 각주를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절 유형을 제시할 때 모음(V)과 음절말 자음(C)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반모음(G)이 들어간 모든 음절유형을 제외한 V, CV, CVC 3가지만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대(2010)은 음절에 대한 설명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부분은 모음 설명 뒤에, 두 번째 부분은 자음 설명 뒤에, 3번째 부분은 이중모음 설명 뒤에, 4번째 부분은 받침 설명 뒤에 나타난다. 이 4부분을 합치면 다음(20)과 같다.

20) 서울대(2012)는 한국어 음절과 관한 설명이 전혀 없으므로 여기는 남은 3가지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

1	○	+	ㅣ	=	이		
	○	+	ㄷ	=	우		
2	ㅅ	+	ㅓ	=	소		
	ㄹ	+	ㅣ	=	리		
3	ㄷ	+	기	=	뒤		
	ㅎ	+	과	=	화		
4	기	+	ㅓ	+	비	=	갑
	ㅓ	+	ㅓ	+	기	=	목

위에서 나타나는 음절 유형을 정리하면 ‘V, CV, CGV, CVC’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연세대 교재와 마찬가지로 음절 핵과 음절 말음만 있는 음절유형 ‘VC’는 빠져 있고, 반모음 ‘G’와 관련된 음절유형도 ‘CGV’를 제외한 다른 유형은 다 빠져 있다.

신라대(2006: 9)은 다른 교재와 달리 음절을 제시할 때, 단어를 음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21)

	자음		모음		자음(받침)
안	ㅇ	+	ㅓ	+	ㄴ
녕	ㄴ	+	ㅓ	+	ㅇ
하	ㅎ	+	ㅓ		
세	ㅅ	+	ㅓ		
요	ㅇ	+	ㅓ		

위 표에서 나타나는 음절의 유형은 다시 ‘VC, CGVC, CV, GC’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이용하여 음절유형을 가르치는 방식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폐음절이 쉬운 개음절보다 먼저 제시되어 초급학습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4가지 통합교재의 음절과 관련한 내용에서 모두 반모음이 들어가는 음절 유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화여대(2010)처럼 음절을 단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며, 이화여대(2010)가 음절 유형만 보완하면 완벽한 음절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본다.

### 3.1.3. 받침에 관한 기술 비교

통합교재에서 받침은 모두 예비편에서 자음과 모음과 더불어 홑받침과 겹받침으로 구별되어 기술되어 있다. 한국어 자음 19개 중 ‘ㅃ, ㅌ, ㅆ’를 제외한 16개 자음이 모두 받침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음절 말에서는 7개 대표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된다.

본고에서 선정한 4가지 통합교재에서 홑받침에 관한 기술 방식은 다음 <표12>처럼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 통합교재의 홑받침에 관한 기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받침 자음’, ‘대표 자음’ ‘음가 표시’, ‘용례 음가 표시’ 4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각 교재에서 홑받침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은 홑받침 ‘ㄱ’로 예를 들면 ‘받침 자음’은 ‘ㄱ, ㅋ, ㆁ’, ‘대표 자음’은 ‘ㄱ’, ‘음성 표기’는 ‘[k]’, ‘용례 음가 표시’는 ‘부엌[부억]’과 같다.

<표 12 > 통합교재의 흘받침 기술 내용

항목 \ 교재	서울대(2012)	연세대(2007)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
받침 자음	O	O	O	O
대표 자음	X	O	O	O
음성표기	X	O	O	O
용례음가표시	X	X	X	O

<표 12>에서 보듯이 서울대(2012)는 흘받침에 관한 기술이 가장 간단하다. 한국어의 7중성에 관한 설명이 없으며, 대표발음과 대표자음의 국제 음성 표기도 없고, 단지 흘받침의 자음과 흘받침이 있는 용례 단어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용례 단어의 받침 발음이 철자와 달리 발음됨에도 [ ]로 실제 발음을 표시하지 않아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지 읽기 연습을 통해 받침에 오는 자음을 발음하여 익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2007)은 먼저 한국어 음절 말에 발음되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를 제시하여 7중성 체계를 설명한 다음 받침에 오는 어떤 자음이 대표음으로 발음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ㄷ, ㅅ, ㅈ, ㅊ, ㅌ, ㅎ, ㅍ/ → [ㄷ]). 이 교재에서 대표 자음, 받침 자음, 받침의 국제 음성 표시, 예문까지 다 제시하고 있지만 용례 단어의 철자와 다른 실제 발음표시가 없다(예, 부엌 [부억]).

이화여대(2010)은 다른 교재와 달리 음절 말에서 올 수 없는 자음(ㄸ, ㅃ, ㅆ)을 제외하고 다른 16개 자음이 음절 말에 나타나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발음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화여대(2010) 교재에서도 흘받침이 들어간 단어는 철자와 실제 발음을 구별하여 표시하지 않다.

신라대(2006)은 흘받침과 겹받침을 다음과 같이 한 표로 설명하고 있다.



<표 13> 신라대(2006: 26) 교재의 받침 기술

받침	대표음	예
ㄱ, ㅋ, ㆁ,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ㄱ[k]	책, 부엌[부엌], 밖[밖], 샷[삭], 닭[닥]
ㄴ, ㄴ, ㄴ, ㄴ	ㄴ[n]	수건, 산, 앓[안], 많[만]
ㄷ,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ㄷ[t]	곧, 밀[민], 옷[온], 꽃[곧], 꽃[꽃], 당[당] 샷[닭] 샷[닭]
ㄹ, ㄹ, ㄹ, ㄹ, ㄹ, ㄹ	ㄹ[l]	살, 밭[밭], 활[활], 싫[실]
ㅁ, ㅁ, ㅁ	ㅁ[m]	감, 삶[삼]
ㅂ, ㅃ, ㅃ	ㅂ[p]	밥, 앞[압], 없[업]
ㅇ	ㅇ[ng]	양

홀받침과 겹받침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겹받침의 경우는 단어에 따라 첫 자음이 발음되기도 하고, 뒤 자음이 발음되기도 하는데, 신라대(2006) 교재는 겹받침의 발음 방법에 관한 설명 없이 단지 예만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2007)은 겹받침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앞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와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22) 연세한국어(2007: 12)

- a. 앞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 ㄱ, ㄴ, ㄴ, ㄷ, ㄷ, ㅃ, ㅃ  
 샷, 많다. 앓다, 여덟, 활다, 값, 없다.
- b.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 ㄷ, ㄷ, ㄹ  
 늙다, 닭, 삶다, 젊다, 읊다.

이 교재는 겹자음 ‘래, 리’의 경우 앞 자음이 발음되기도 하고 뒤 자음이 발음되기도 하는 예를 제시하지 않았다. ‘래, 리’은 단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음된다.

- (23) a. 여덟[여덜]      읽기[일끼]  
       b. 밭다[밭따]      읽다[익따]

이화여대(2010)은 겹받침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팁’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4) 이화여대(2010: 12)

Tip: ‘ㄴ, ㄹ, ㄷ, ㅂ, ㄹ, ㄷ’ 등 겹받침의 발음은 앞의 자음을 발음하거나 뒤의 자음을 발음한다.

앞의 자음을 발음한 겹받침: ㄴ, ㄹ, ㄷ, ㅂ

예: 앓다[안따], 많다[만따] 여덟[여덜] 값[갑] 없다[업따]

뒤의 자음을 발음한 겹받침: ㄹ, ㄷ

예: 닭[닥] 밭다[박따] 막다[막따] 삶[삼] 젊다[점따]

그러나 이 교재는 겹받침 ‘ㄴ, ㄹ, ㄷ, ㄹ, ㄷ’만 제시하고, 겹받침 ‘ㄱ, ㅂ, ㅈ, ㅊ’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 겹받침의 발음방법은 연세대(2007)과 같이 겹자음 ‘ㄹ, ㄹ’의 발음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또한, 받침과 관련된 음운현상으로 말음중화만 제시하고 연음화와 자음군단순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제까지 선정된 4가지 통합교재에서의 받침과 관련된 기술을 분석하였다. 4가지 교재 통합교재의 특성상 모두 겹받침에 관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불완전하다. 서울대(2012)는 겹받침에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다. 나머지 3가지 교재는 겹받침에 관한 기술이 있지만, 겹받침의 발음 방법 중 ‘ㄴ, ㄹ, ㄷ, ㅂ, ㄹ, ㅂ’은 앞 자음을 발음하거나 ‘ㄹ, ㄹ, ㄷ’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앞 자음을 발음할 수도 있고 뒤 자음을 발음할 수도 있는 경우 ‘ㄹ, ㄹ’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4가지 통합교재는 모두 받침과 관련한 말음중화, 연음화, 자음군단순

화 등 음운현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

## 3.2. 음운현상의 제시 방식 및 순서

본 절에서는 2.1.2에서 선정한 음운현상이 초급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와 각 교재의 음운현상 제시 순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합교재는 대부분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관한 기술을 초급 교재 맨 앞의 예비편에 포함하고 있지만, 음운현상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발음> 혹은 <발음 연습>이라는 항목에서 단어나 짧은 문장의 발음표시만 보여주고 있다. 4가지 교재에서 <발음>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교재는 서울대(2012)와 이화여대(2010)만 있고, 나머지 2가지 교재는 발음에 관해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각 교재에서 음운현상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 3.2.1. 음운현상의 제시 방식

‘발음’은 소리를 내며 발화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발음은 말하기, 읽기 활동과 관련이 있다. 우선 ‘발음’이라는 항목이 있는 교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 1) 서울대(2012)

이 교재는 총 3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대체로 본문 대화, 발음, 문법,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법 설명 바로 뒤에 ‘주의’라는 항목도 있다. 이 교재에서는 발음과 관한 설명은 주로 ‘발음’과 ‘주의’에서 하고 있다. ‘발음’에서 주로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단어나 짧은 문장의 발음 표시를 하고 있고, ‘주의’라는 부분에서

는 음운현상의 나타나는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 과 구성 중의 ‘발음’과 ‘주의’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发音	
① 이것[이걸]	저것[저걸]
② 이것은[이거슨]	저것은[저거슨]
③ 학생[학생]	
④ 무엇입니까[무어십니까]	책상입니다[책상입니다]
⑤ 의자[의자]	

<그림 2> 서울대 교재(2012: 40) 발음 제시

注意:

한국어中, 除了 ‘ㅇ’ 以外, 其他收音后面跟着以元音开头的音节是, 收音要连到后面的音节上发音。

例: 이것은 → [이거슨]

<그림 3> 서울대 교재(2012:40) 발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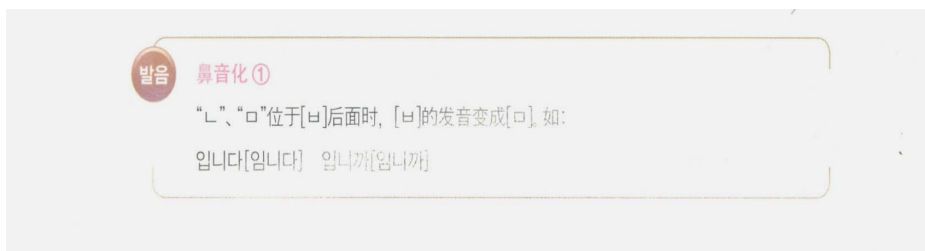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sup>21)</sup>은 서울대(2012) 교재 1과에 나온 음운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발음’ 부분에서 보여주는 음운현상은 말음중화, 연음화, 경음화, 비음동화, 그리고 ‘ㄴ’ 발음까지 총 4가지이지만, 이 4가지 음운현상을 한꺼번에 초급 학습자

21) 중국어 번역: 한국어에서는 ‘ㅇ’제외한 다른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말음은 뒷음절의 두음으로 옮겨서 발음해야 한다.

들에게 제시하면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연음화’ 한 가지만 설명하였다. 이 교재의 ‘발음’은 바로 본문 뒤에 나오므로 본문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연습 문제에서 음운현상에 대한 연습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 2) 이화여대(2010)

이 교재는 총 15과로 구성하여 과마다 주제와 관련된 본문 대화 2개(part 1, 2)와 듣기연습(part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현상의 제시는 앞의 2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의 ‘발음’ 부분은 첫 번째 본문 대화 밑이나 두 번째 본문 대화 밑에 나온다. ‘발음’ 항목에서는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만 제시하고 음운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한 제시가 없다. 교재 1과에서 제시된 ‘발음’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이화한국어 (2010: 39)

<그림 4><sup>22)</sup>에서 보듯이 비음동화에 대한 설명이 매우 간단하고 부족하다. 비음동화는 자음 ‘ㅂ, ㄷ, ㄱ’가 비음 ‘ㄴ, ㄹ’ 앞에 오면 [ㅁ, ㄴ, ㄹ]으로 발음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국말’ [한궁말], ‘맞는 표현’ [만는표현] 등 상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초급 교재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교재 어디에도 치경음의 비음동화와 연구개음의 비음동화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학습자는 양순음 비음동화만 인식하므로, 양순음 ‘ㅂ’의 비음동화뿐만 아니라 치경음 ‘ㄷ’과 연구개음 ‘ㄱ’의 비음동

22) 중국어 번역: ‘ㄴ’, ‘ㄹ’은 ‘ㅂ’뒤에 오면 [ㅂ]은 [ㅁ]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화에 관한 설명도 교재에서 다 제시해야 한국어 학습자들이 3가지 비음동화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교재에서는 어떤 규칙을 제시할 때만 해당 규칙과 관련이 있는 발음을 표시하고 다른 규칙과 관련된 부분의 발음표시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1과에서 비음동화 현상만 설명하고 있어서 비음동화를 보여주는 ‘입니다’에만 발음 [입니다]를 표시하고 ‘학교’처럼 경음화를 보여 주는 단어의 경우는 발음표시 [학꾜]가 전혀 없다. 처음부터 여러 음운현상을 가르치는 것은 초급학습자들에게 부담되므로 음운현상을 하나씩 가르치는 방식은 좋지만, 다른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나 짧은 문장에도 철자와 발음이 다를 때는 발음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한국어 음운현상에 관한 인상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읽기와 말하기 연습에서도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타나면 발음을 표시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그러나 이 교재는 연습에서 나온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단어나 표현에 발음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교재 연습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연습

다음 물건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서로 묻고 답해 보세요.  
先观察下列图画, 然后仿照例句完成对话。



· 한국어 책 韩国语书  
· 선생님 老师  
· 네 是  
· 사전 词典

<그림 5> 이화한국어(2010: 36) 연습문제

위에서 보듯이 ‘사전입니까?’에서는 ‘-입니까’에서 ‘ㄴ’ 앞에 ‘ㅂ’이 오면 비음동화가 일어나므로 [임니까]로 발음한다. 이런 상황에는 학습자들이 주의를 일으키기 위하여 ‘-입니까’ 밑에 밑줄을 긋거나 글씨를 다른 색깔로 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지금까지 ‘발음’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교재에 대한 살펴보았다. 두 교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음운현상의 설명과 제시를 ‘발음’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발음’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교재들이 음운현상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발음과 관련된 읽기나 말하기 연습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세대(2007)

연세대(2007)은 총 1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마다 주제와 관련된 대화로 구성된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단원도 다시 본문 듣고 읽기, 어휘, 문법 연습, 문법 설명 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는 ‘발음’이라는 항목이 없지만, 발음 교육을 단원 각 항목으로 통합한 교재로 볼 수 있다. 각 항목의 제시 방식은 거의 다 발음과 연관성이 있다. 제1과의 소단원 1에서 각 항목의 제시 방식은 <표 14>와 같다.

<표 14> 연세대 교재의 구성 방식

항목	제시방식
본문 대화	CD를 듣고 따라 읽기
어휘	그림과 결합하기
문법연습	( )를 채우기
	쓰고 읽으십시오.
	친구들과 인사하십시오(말하기).
문법 설명	

<표 14>에서 발음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말하기와 읽기다. 이 교재에서 읽기와 말하기 연습이 많이 있으며, 연습의 형식도 다양하므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발음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문법 연습 중의 발음과 관련된 ‘쓰고 읽으십시오’의 제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세한국어1(2007: 12) 연습문제

<그림 5>에서 이름 소개할 때 쓰는 ‘N+입니다’의 문형 연습에서 양순음 ‘ㄴ’이 비음 ‘ㄹ’ 앞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비음동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비음 동화의 원리에 대해 모르면 동일한 음운 조건에서 있는 다른 단어의 발음을 예측할 수 없다. 이 비음동화 규칙을 모르면 ‘입는 옷’의 경우는 단지 철자에 따라 [입는온]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운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4) 신라대(2006)

이 교재는 총 35과로 구성되어 있다. 1~4과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관련된 내용이고, 5과부터 정식으로 본문에 들어간다. 5와 이후의 과마다 ‘들으면서 익히기’, ‘단어 익히기’, ‘표현 익히기’, ‘말하며 익히기’, ‘한 걸음 더’ 등 5부분으로 구성한다. 이 교재는 ‘발음’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단어 익히기’에서 단어의 철자와 발음이 다른 단어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단 | 어 | 익 | 히 | 기

### 중요 단어

- |                      |                         |
|----------------------|-------------------------|
| • 한국어[한구거](韩国语)      | 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
| • 선생님(老师)            | 예)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
| • 학생[학생](学生)         | 예) 학생이 공부합니다.           |
| • 학교[학교](学校)         | 예) 학생이 학교에 갑시다.         |
| • 수업 시간[수업 시간](上课时间) | 예)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
| • 이야기하다(说, 说话, 聊天)   | 예) 학교에서 한국어를 이야기합니다.    |
| • 지키다(遵守)            | 예) 수업 시간을 지키세요.         |
| • 숙제[숙제](作业)         | 예) 숙제를 해 오세요.           |

<그림 6> 신라대(2006: 30) 단어 제시 내용

이 교재는 단어 제시 단계에서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발음을 <그림 6>에서 보듯이 단어 뒤에 [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음운현상은 연음화(한국어[한구거]와 경음화1(학교[학교]))이다. 하지만 음운현상에 관한 설명이 없고, 초급 학습자들이 음운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단어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만 [한구거]로 발음하고 ‘중국어’는 절자대로 [중국어]로 발음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음운현상의 적용 환경도 같이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같은 음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에서도 쉽게 음운현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2.2.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

본고에서 선정한 4가지 통합교재 중에서 서울대(2012)와 이화여대(2010)에서만 ‘발음’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나머지 3가지 교재는 발음에 관한 설명은 단지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교재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는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단어의 제시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음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1로, 어간만 비음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2로, 관형형 어미(을)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3으로 정한다. 또한, 비음화는 선행자음이 장애음인지, 공명음인지에 따라 장애음 비음동화와 ㄹ-비음화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장애음 뒤의 비음화는 간단하게 비음동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표 15 > 통합교재 음운현상의 첫 출현 위치

유형	음운현상	교재			
		서울대 (2012)	연세대 (2002)	이화여대 (2010)	신라대 (2006)
대치	말음중화	1.1 40	1.1 2	1.1 30	1.2 16
	연음화	1.1 40	1.1 2	1.2 36	1.3 20
	경음화1	1.1 40	1.1 2	1.2 36	1.4 24
	경음화2	1.5 63	1.3 70	1.2 36	1.6 36
	경음화3	1.22 201	1.1 5	1.9 37	1.4 24
	비음동화	1.1 40	1.1 2	1.2 36	1.4 24
	ㄹ-비음화	1.15 143	1.7 228	1.3 63	1.13 82
	설측음화	1.25 228	1.7 237	1.2 41	1.11 65
	구개음화	1.5 63	1.3 83	1.2 43	1.5 31
탈락	자음군단순화	1.4 56	1.1 25	1.1 30	1.3 20
	ㅎ-탈락	1.9 92	1.6 191	1.2 46	1.7 42
축약	유기음화	1.4 56	1.1 2	1.2 41	1.3 21
첨가	ㄴ-삽입	1.7 77	1.7 227	1.2 41	1.10 61

(표에서 나타나는 숫자 ‘1.1 40’은 통합교재 1권 1과 40쪽)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합교재에서 음운현상에 관한 기술이 있는 교재가 많지 않고,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단어나 문장은 거의 다 1권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음운현상은 문법이나 어휘와 달리 과마다 몇 개씩 배치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1권의 앞부분에 나타난다. 따라서 통합교재에서 음운현상의 교육은 주로 초급 교재에서 이뤄야 한다. 위의 <표15>에서 각 음운현상이 통합교재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각 통합교재에서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를 <표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6> 통합교재에서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

	서울대(2012)	연세대(2002)	이화여대(2010)	신라대(2006)
↓	말음중화	말음중화	말음중화	말음중화
	연음화	자음군단순화	자음군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경음화1	연음화	연음화	연음화
	비음동화	경음화1	경음화1	유기음화
	유기음화	비음동화	경음화2	경음화1
	자음군단순화	유기음화	비음동화	경음화3
	구개음화	경음화3	설측음화	비음동화
	경음화2	경음화2	유기음화	구개음화
	ㄴ-첨가	구개음화	ㄴ-첨가	경음화2
	ㅎ-탈락	ㅎ-탈락	구개음화	ㅎ-탈락
	ㄹ-비음화	ㄴ-첨가	ㅎ-탈락	ㄴ-첨가
	경음화3	ㄹ-비음화	ㄹ-비음화	설측음화
	설측음화	설측음화	경음화3	ㄹ-비음화

위의 4가지의 통합교재의 음운현상들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음중화, 자음군 단순화, 연음화이다. 둘째 부분은 음절 구조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경음화와 비음화와 ㄹ-비음화, 유기음화, 구개

음화, 설측음화, ㄴ-첨가 등이다. 따라서 각 교재의 음운현상의 제시순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5) [말음중화, 자음군 단순화, 연음화] → [경음화1, 경음화2, 경음화3, 비음동화, 유기음화, 구개음화, 설측음화, ㄴ-첨가]

여기까지 통합교재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음운현상이 거의 다 1권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많은 규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초급학습자들이 쉽게 부담을 가지게 되고 학습의 흥미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규칙의 제시 순서는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후에 4.2에서 다루고자 한다.

## 4. 통합교재를 위한 발음내용의 서술 및 교육내용 제시 방안

통합교재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말하기, 문법, 어휘, 듣기 등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습득시키기 위한 언어 교육 수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물이다. 대부분 통합교재는 본문과 어휘, 문법과 문형 표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를 통해 읽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발음에 관한 기술은 거의 교재 앞부분 ‘예비편’에서 자음과 모음 발음만 제시하고, 본문에는 발음에 관한 기술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발음이 문법이나 어휘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발음교재가 있어도 통합교재처럼 보편적으로 쓰지 않아서, 발음교육을 통합교재에서 교육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통합교재의 발음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통합교재를 위한 효과적인 발음교육의 서술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재에서 발음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언어 교육의 접근 방법과 발음 교육의 모형

언어교육의 접근 방법은 언어의 성질과 학습과정의 성질에 대한 언어학적이고 심리적인 통찰력의 융합으로부터 나온 언어학습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접근은 응용언어학의 이론을 뜻하며,<sup>23)</sup> 이것은 언어학습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권미정(1991: 61~74)은 외국어 교수에 관한 연구는 형태주의적 언어관을 배경으로 한 구조주의적, 변형 문법적, 상황적 접근방법을 거쳐 기능주의적 언어관을 배

---

23) 홍중명(1996: 12)은 흔히 응용 언어학의 하나인 외국어 교육에 관한 이론에서는 순수 언어학과 달리 이론이라는 말 대신 ‘접근방법(Approach)’이나 ‘교수법(Method)’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하였다.

경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고 하며, 이 4가지 접근 방법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1960년대 중반까지 언어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방법론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극-반응의 성격을 지닌 연습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의 가장 큰 약점은 언어의 문법, 구조적 관계만을 강조함으로써 문장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 2) 변형문법적 접근 방법

변형문법적 접근 방법은 이성주의에 입각한 변형문법과 잠재 언어능력으로 언어규칙을 인지한다는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어 습득에서 인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이론적 가설을 제시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3) 상황적 접근 방법

상황적 접근 방법은 1920년대 영국의 언어학자인 Palmer, Hornby 등이 만든 방법으로 1960년대에 호주, 유럽을 중심으로 영어 교수에 많이 쓰였다. 이 접근법은 말 그대로 학습자가 목표 언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이다. 상황적 접근 방법은 구조주의 방법

이 형태에만 집착하는 점을 만들어진 방법이지만 이 방법에서도 문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만 교과 과정이 상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법 학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 4) 의사소통적 접근방법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은 언어능력-언어수행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이며, 1970년대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접근방법은 단순한 모방이나 반복연습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다. 의사소통적 접근법은 기존의 구조주의적 접근방법과 달리 언어의 의미를 중시한다. 따라서 학습 초기 단계부터 의사 전달에 따른 개념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다른 접근방법들과 달리 의미 중심으로 교과를 구성할 경우 대상으로 할 의미의 범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다.<sup>24)</sup>

홍종명(1996)은 초급 교재는 다른 단계 교재들과는 달리 문법 요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고, 언어 학습 과정에서 기초 구조의 학습이 선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초급교재에서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구조를 익힌 후에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발음 교육에서 허용·김선정(2007: 21)은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에 따라 상향식(Botton-up model)과 하향식(Top-down model)으로 구분하고, 각 모형에 대한 특징과 수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4) 예를 들면 인사하기의 경우에도 상화와 대인 관계 등에 따라 수많은 상황이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표 17> 접근 방식에 따른 발음 교육의 모형(허용, 김선정 2007: 21)

상향식(Botton-up model)	하향식(Top-down model)
-형태에 초점을 두는 방법	-상황이나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법
-개별 음에서 시작하여 초분절음으로 지도해 가는 방식	-담화 수준의 초분절적 요소에서 시작하여 개별 음으로 지도해가는 방식
-단점: 실제 언어생활에서 빚어지는 상황과는 유리될 수 있음	-단점: 개별음의 정확한 음가를 익히는데 소홀하기 쉬움

본고에서는 어느 한 가지 모형을 선택하여 발음 교육을 통합교재에 통합하기보다는 <표 17>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발음교육 모형을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작용 모형으로 발음교육 통합교재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즉 형태에 초점을 두고 개별 음의 정확한 음가를 익힌 후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응용시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 4.2. 발음 내용 선정과 제시 순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발음교육은 주로 음운, 음운현상 그리고 운소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음운과 음운현상은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운소는 또한 음장, 억양, 강세로 이루어지고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한 유일한 운소인 음장은 노년층에서 구별되고, 장년층은 장단의 구별이 희미하고 청년층 이하는 장단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배주채, 2003: 36). 따라서 국어사전에 단어마다 장단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대체로 무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음장에 관한 지식을 초급 학습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소리의 세기도 단지 말을 듣기 좋게 만든 요소일 뿐이고 의미 변별성이 없으므로 음장과 같이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소리의 높낮이 즉 억양에 따라 문장 유형도 달라지고 문장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본고에서는 억양은 교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운소의 내용은 억양밖에 없으므로 이 장에서는 운소를 제외한 음운과 음운현상을 통합교재에서 제시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4.2.1. 한국어 모음과 자음의 제시 순서

자음과 모음의 제시 순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해야 하며,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학습자에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며, 어떤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2장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 분석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자음과 모음 체계를 제시한 다음에 2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제시 순서를 정하였다.

모음의 제시 순서는 자소에 따라 기본 모음에서 복합모음의 순서를 밟기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에 따라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중에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본고에서는 이 10개 모음을 기본 모음이라 부른다. 나머지 모음은 이 10개 기본모음 중 두 개의 자소를 합하여 만든 복합모음이다. 예를 들면 ‘ㅘ’는 ‘ㅏ+ ㅓ→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음의 제시 순서는 다음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 모음의 제시 순서: 기본모음 ⇒ 복합모음

a. 기본모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b. 복합모음: ㅘ ⇒ ㅙ ⇒ ㅚ ⇒ ㅛ ⇒ ㅜ ⇒ ㅠ ⇒ ㅡ ⇒ ㅣ

자음은 음절 초와 음절 말에 두루 쓰이는 자음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음절 초만 쓰이는 자음을 제시한다. 중국어 자음에 경음이 없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음을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경음은 평음과 격음을 제시한 뒤에 제시한다. 자음의 제시 순서는 (27)과 같다.

(27) 자음의 제시 순서: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ㆁ  
 ⇒ ㅍ ⇒ ㅊ ⇒ ㅎ ⇒ ㄱ ⇒ ㄷ ⇒ ㅁ ⇒ ㅅ ⇒ ㅈ<sup>25)</sup>

또한, 겹자음보다 단자음이 더 쉬워서 단자음을 먼저 제시한다. 겹자음 제시에서는 앞 자음을 발음하는 것을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것보다 먼저 제시하고, 앞뒤 자음을 다 발음할 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제시한다.

받침의 제시 순서는 (28)과 같다.

(28) 받침의 제시 순서

a. 단자음 ⇒ 겹자음

ㄱ, ㄱ, ㅋ(ㄱ) ⇒ ㄴ(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ㄷ) ⇒ ㄹ(ㄹ)  
 ⇒ ㅁ(ㅁ) ⇒ ㅂ, ㅍ(ㅂ) ⇒ ㅇ(ㅇ)

b. 앞자음을 발음하는 경우

ㄱ(ㄱ) ⇒ ㄴ, ㄴ(ㄴ) ⇒ ㄹ, ㄹ(ㄹ) ⇒ ㅁ(ㅁ)

c. 뒷자음을 발음하는 경우

ㅁ(ㅁ) ㅁ(ㅁ)

d. 앞, 뒷자음을 다 발음하는 경우

25) 현대 한국어에서 음절 말에 발음되는 소리가 7개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음절 말에 ‘ㅅ’까지 8개가 발음되었다. ‘ㅅ’은 음절말에서 [ㄷ]로 중화되어, 음절 초에서만 발음되지만, 본 연구는 1527년에 간행된 「훈몽자회」의 순서에 따라 ‘ㅅ’을 ‘ㅇ’보다 먼저 제시하였다.

ㄹ(ㄹ, ㄱ) ⇒ ㄹ(ㄹ, ㅂ)

초급학습자들에게 사전은 제일 중요한 학습 도구이므로 학습자들이 편하게 사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통합교재에서 자음과 모음의 체계와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제시한 뒤에 사전의 글자 제시 순서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29) 사전의 자음과 모음의 제시 순서

a. ㄱ ㅋ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ㅊ

b.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ㅿ

음절 구조의 제시는 4단계로 나뉘어서 제시한다. 즉 첫째, 단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유형 ‘V’를 먼저 제시하고, 둘째, 이중 모음의 음절 유형 ‘GV, VG’를 제시하고, 셋째, 음절 초에 자음이 들어간 ‘CV, CGV, CVG’를 제시하고, 넷째, 음절 말에 ‘VC, GVC, CVC, CGVC’이 들어간 음절을 제시한다.

#### 4.2.2.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

이제부터 통합교재를 위한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3.3에서는 2.2에서 선정한 초급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각 음운현상에 관해 통합교재에 나타나는 순서를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음운현상의 제시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형복(2006: 29)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어휘선정 자료<sup>26)</sup>들을 토대로

---

26) 김형복(2006)은 다음 세 가지 자료로부터 기초어휘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국립국어원(2003)에서 선정한 기초 어휘 982개 중 280개, 둘째는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2000)에서 선정한 기초어휘 1087 중 246개, 셋째는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연구에서 선정한 기초어휘 725개 중 247개이다.

어휘 내에서의 발음 규칙 빈도수를 조사하여 어휘와 함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음절까지 고려하여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음운현상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0) 중화규칙 → 겹받침 단순화 규칙 → 연음 규칙 → ㅎ-탈락 → 경음화 규칙  
→ 비음화 규칙 → 유기음화 규칙 → 설측음화 규칙 → 구개음화 규칙  
→ 사잇소리 규칙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휘의 급수에 관한 한정이 없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는 과연 초급학습자들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본고에서는 이 규칙들의 세부적인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초급 통합교재에서 음운현상의 빈도를 조사하기로 한다. 각 음운현상의 빈도수 조사는 주로 통합교재 1권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선정된 4가지 통합교재의 마지막에 ‘단어 찾아보기’에 나온 단어에 적용된 음운현상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물론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에 나타난 음운현상의 빈도수를 따라 정한 음운현상의 순서는 실제 음운현상을 가르쳐야 할 순서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단원에는 여러 가지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서울대(2012) 교재는 첫 단원 ‘인사’에서는 경음화1, 비음동화, 연음화, 말음중화 4가지 음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4가지 음운현상을 한꺼번에 초급 학습자들에게 다 제시하면 아주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한 단원에서 보여 주는 여러 음운현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교재에서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단어의 수와 단어에 적용된 각 음운현상의 빈도수는 다음 표와 같다.<sup>27)</sup>

<표 18> 통합교재 음운현상의 빈도수 (단위: %)

교재 음운현상	서울대 (2012)	연세대 (2002)	이화여대 (2010)	신라대 (2006)	합계	빈도수
경음화1	12	47	79	24	162	28.91
연음화	18	40	43	11	112	20.66
유기음화	9	25	32	10	76	14.02
말음중화	7	11	28	5	51	9.41
비음동화	17	9	14	4	44	8.12
자음군단순화	4	10	11	2	27	4.98
ㄴ-첨가	2	5	11	1	19	3.51
ㄹ-비음화	2	4	10	2	18	3.32
설측음화	1	5	7	1	14	2.58
경음화2	1	4	3	2	10	1.85
경음화3	2	5	0	0	7	1.29
구개음화	1	1	2	1	5	0.92
ㅎ-탈락	1	1	1	1	4	0.74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음운현상은 경음화1로 장애음 뒤 경음화이다. <표 18>에 각 음운현상의 빈도수를 어느 정도 참작하여 본고에서는 음운현상의 교육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31) 빈도수에 따른 음운현상의 제시순서

경음화1 → 연음화 → 유기음화 → 말음중화 → 비음동화 → 자음군 단순화 → ㄴ-첨가 → ㄹ-비음화 → 설측음화 → 경음화2 → 경음화3 → 구개

27) 각 교재에서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통계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음화 → ㅎ-탈락

초급 통합교재에서 구개음화와 ㅎ-탈락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는 ‘같이’, ‘좋아하다’, ‘싫어하다’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만,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없으므로 이 단어들이 교재 앞에 나타나서 먼저 발음을 익히면 규칙을 나중에 제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제시한 (31)과 3장에서 제시한 (25)를 종합하면 통합교재의 음운현상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통합교재의 음운현상 제시순서<sup>28)</sup>

말음중화 → 자음군 단순화 → 연음화 → 경음화1 → 비음동화 →  
유기음화 → ㄴ-첨가 → ㄹ-비음화 → 설측음화 → 경음화2 → 경음화3  
→ 구개음화 → ㅎ-탈락

이러한 순서의 효과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음운현상을 통합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4.3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4.3. 발음 내용 및 교육 내용 서술 방안

### 4.3.1. 내용 구성

교재를 구성할 때 배워야 할 내용을 항목화하여 앞부분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수

---

28) 여기서 유기음화의 빈도수가 비음동화의 빈도수보다 더 높는데, 제시 순서는 비음동화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초급 통합교재에서는 사용한 문장은 다 비음동화를 보여주는 ‘-ㅂ/습니다’체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미정(1991: 77)은 교재의 내용면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음가에 대한 설명, 문법 항목의 수, 본문의 대화내용, 문제, 동사문과 명사문의 제시 순서, 번역의 문제, 음운전사, 운소, 새로 나온 어휘에 대한 제시 듣기 지도를 위한 내용의 제시, 독해를 위한 문자의 제시, 연습에 대한 사항, 교수지침, 색인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음소는 교재 맨 앞에 제시하고 음운현상의 설명과 연습은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여,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주제 10개를 선정하여 10개의 단원을 설정하기로 한다. 각 단원은 다시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고 소단원마다 문법, 어휘, 발음, 연습 등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제시할 통합교재의 내용 구성은 <표 19>와 같다<sup>29)</sup>. 발음과 관련된 단원으로 이 절에서 제시할 과는 7과이다.

---

29) 일부만 제시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부록2 참조



<표 19> 통합교재의 구성

단원	제목	소제목	과제	본문 내용			연습활동		
				어휘	문법 항목	발음	발음연습	문형연습	듣기연습
예비	한국어 자음과 모음	모음	모음 익히기	단모음과 이중모음만 있는 단어	V, GV, VG,	모음의 발음	모음 읽기	-	듣고 고르기
		자음	자음 익히기	자음과 모음이 있는 단어	CV, CGV, CVG,	자음의 발음	자음 읽기	-	듣고 고르기
		받침	받침 익히기	받침 있는 단어 제시	VC, GVC, CVC, CGVC, CVGC	말음중화 연음화 자음군단순화	단어 읽기	-	듣고 고르기
		음운현상 요약	-	-	-	-	-	-	-
7	교통	실례하지만 길 좀 문졌습니다	위치, 길 묻기	위치 관련어휘	-오리 -어서 -에서까지	르 비음화 강릉[강늑]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지하철로 30분 쯤 걸립니다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 묻기	교통수단용 관련어휘	-오리 -이니까 -지 말다	ㄴ-첨가 강남 역[강남네]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꽃 가게 앞에 세워 주십시오	택시 이용하기	택시 이용 관련어휘	ㄷ 동사 르 동사	설측음화 서울예[서울레]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8	전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전화번호 묻기	전화 관련 어휘	-ㄱ 게요 -이나	'쳐, 겨의 발음 [처, 제]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늦으면 전화할 게요	전화로 약속하기	약속 관련 어휘	-에게서 -으면	경음화 없대[안때]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웨이 씨 좀 바꿔 주세요	전화상태 바꿔 달라고	통화 관련 어휘	-을 거예요 만 -(은)는데요	경음화 -ㄱ거예요 [ㄱ꺼예요]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듣고 대답하기

\*1, 2, 3, 4, 5, 6, 9, 10과의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함

위에서 보듯이 통합교재의 구성은 크게 주제, 본문내용, 연습활동 3부분으로, 나누고, 음소 교육은 예비에서 제시하고, 음운 변동 규칙 중 받침과 관련된 빈도수가

높은 말음중화, 연음화, 자음군단순화는 예비의 마지막 음소 교육에서 하고, 나머지 음운현상은 10개 단원의 본문내용과 연습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우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 발음 쓰는 순서 등을 배운 후에, 본문 내용(어휘, 문법, 발음) 공부하기 전에 중국어보다 복잡한 한국어 음운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철자대로 읽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한국어 음운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발음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3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교재에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음운현상’이라는 항목을 설정하면 전체적인 발음교육에 유리하다. 이런 항목은 어휘나 문법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설정하므로 가능하면 단어에 국한해야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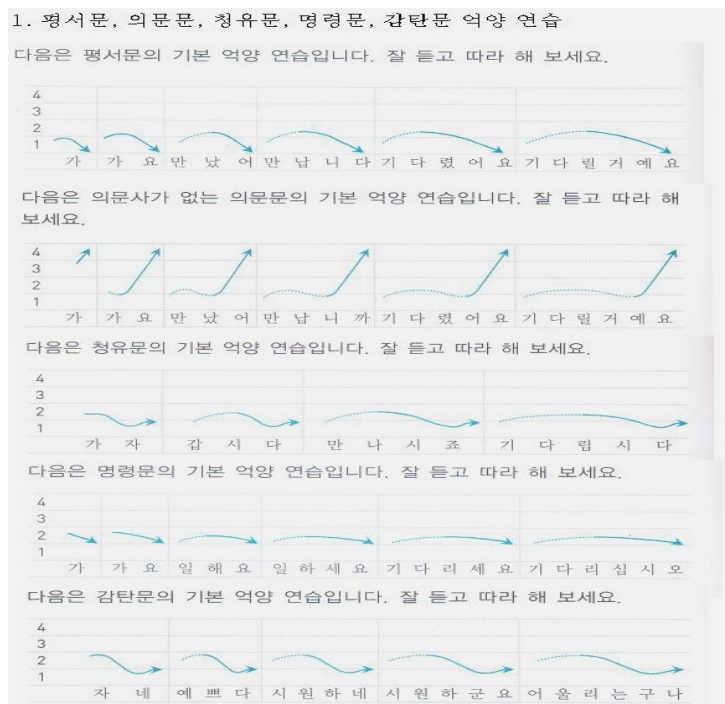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단어에 적용된 음운현상 제시는 (33)과 같다.

### (33) 음운현상

- 학교[학교] (경음화1)
- 좋다[조타](유기음화)
-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비음동화1)
- 같이[가치](구개음화)
- 무슨 요일[무슨요일](ㄴ-첨가)
- 한국말[한궁말](비음동화3)
- 정류장[정뉴장](ㄹ-비음화)
- 설날[설랄](설측음화)
- 끝나다[끈나다](비음동화2)
- 앉다[안따] (경음화2)
- ㄹ 것이다[ㄹ 꺼시다](경음화3)
- 좋아하다[조아하다](ㅎ-탈락)

<표 19>에 따라 억양의 제시도 ‘예비편’에서 포함하고 있다. 운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문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는 운소에 관련된 내용은 ‘예비편’에서만 제시하고 본문에서 CD녹음과 교사의 발음에 따라 습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교재 본문의 서술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예비편에서 억양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통합교재의 억양 제시(권의현 2012: 38)

이제부터 각 소단원에서 음운현상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대규(1986)는 발음 교육이 ‘제시-설명-반복-응용’의 4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교육할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모범적인 학습 항목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이다. 설명 단계는 제시한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해주는 단계이다. 반복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모방단계이며, 응용단계는 학습자가 반복단계를 통하여 습득한 학습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여러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단계이다.

이향(2002)은 발음 교육은 ‘도입-제시-연습-활용-정리’ 5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입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노출해 줌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공부할 내용에 대하여 유추하여 보게 한다. 제시 단계는 일종의 인식 단계로 학습자가 청각적으로 인지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을 발화할 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단계이다. 연습과 활용 단계는 산출 단계로 비로소 학습자는 인식한 소리를 내게 된다.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발음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음 전략을 제시한다.

이주희(2009)는 발음 교육의 단계를 전통적인 언어지도의 세 단계-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에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표 20> 발음 지도의 세 단계(이주희, 2009: 71)

단계	목표	활동
제시(presentation)	-명시적 지식 습득 및 규칙의 내재화 -학습자 의식 고양	=설명 및 분석하기 -학습자 의식 고양
연습(practice)	-발음 연습 -습득한 발음 고정화	-통제 연습 -의도 연습 =피드백(feedback)제공
생성(production)	-습득한 발음 사용	-즉흥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용

본고에서 채택하는 발음 교육의 단계 설정은 전통적인 언어지도 세 단계의 틀을 약간 변형하였다. 노대규(1986)는 전통적인 제시단계를 다시 ‘제시’와 ‘설명’으로 나누고, 전통적인 연습단계는 ‘반복’으로 규정하고 응용단계는 전통적인 생성 단계와 일치한다. 이향(2002)이 설정한 ‘제시’와 ‘정리’ 단계는 전통적인 언어지도의 제시단계에 해당하고, ‘활용’단계는 생성단계에 해당한다. 이향(2002)은 전통적인 언어지도의 세 단계에 도입단계를 보충하였다.

본고는 선행연구와 전통적인 언어지도의 세 단계를 근거하여 통합교재에서 발음 교육의 단계를 ‘도입-설명-연습-응용’ 4단계로 설정하기로 한다. 본고는 선행연구와 달리 발음을 홀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교재에서 다른 언어의 기능과 통합시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합교재에서 단계별로 발음 교육의 구체적인 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도입 단계

도입단계는 학습할 음운현상을 어휘 부분으로 통합시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각 단원에서 ‘단어 듣기’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단원에서 학습할 주제와 음운현상에 관련된 단어의 철자와 발음을 같이 표시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도입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설명단계와 잘 구분해야 한다. 도입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설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도입 단계를 <그림 8>에서 제시한 어휘 부분으로 통합시키기로 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통합교재 제1과 자기소개 첫단원 ‘안녕하세요’(경음화)의 제시단계이다.

## 어휘

녹음 내용에 따라 다음 단어의 발음을 주의하면서 읽어 보세요.



꽃다발[꼰따발]



학교[학꾜]



회사원



공책



잡지[잡찌]



학생[학쌩]

<그림 8> 통합교재 도입 단계 모형

위에서 제시한 어휘 발음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ㄷ’은 [디]로, ‘ㄱ’은 [기]로, ‘ㄸ’은 [찌]로 발음하는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들을 자연스럽게 ‘설명’ 단계로 유도한다.

### 2) 설명 단계

통합교재의 설명 단계는 문법 설명과 발음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발음의 설명 단계는 본격적으로 음운현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단계이다. 이 부분은 학습자들에게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 시킨다. 그리고 발음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반복적인 발음 연습이므로 문법 설명 부분에서도 발음에 주의하여 제시해야 한다. 문법 설명 부분은 발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아니므로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을 다르게 표시하면 된다.

다음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통합교재 1과 첫 단원 ‘안녕하세요’의 설명단계이다.

### 문법

N+입니다, 입니까

존대의 표현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입니다’ 가오면 서술문이고, ‘-입니까’는 의문문이다.

예) A: 학생입니까?

B:네, 학생입니다.

### 발음

경음화1:

받침‘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오는 ‘ㄱ, ㄷ, ㅂ, ㅌ’은 [ㄱ, ㄷ, ㅂ, ㅌ]로 발음한다.

예) 학교[학꾜] 듣다[듣따] 학생[학생] 직장[직짱] 국적[국쩍]

<그림 9> 통합교재 설명 단계 모형

교사가 이 단계의 발음을 설명할 때는 2장에서 논의했던 중국어의 성조를 이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경음화를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더 쉽게 경음을 발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음화를 설명할 때는 평음 ‘ㄱ, ㄷ, ㅂ, ㅈ, ㅅ’는 중국어의 2성이나 3성을 발음하는 느낌으로, ‘ㄱ, ㄷ, ㅂ, ㅈ, ㅅ’는 중국어의 1성이나 4성을 발음하는 느낌으로 발음하도록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발음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습득할 수 있으므로 문법 설명 단계에서도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부분 밑에 밑줄을 치고 학습들의 주의를 촉구한다. 본문 대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 3) 연습단계

연습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모방단계이다. 통합교재는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음연습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인 연습을 하기 위하여 문형 연습에서 구현한다. 문형 연습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가능하면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제1과 ‘자기소개’에서 ‘N+입니다, N+입니까?’와 ‘경음화’에 관한 연습단계의 모형 제시는 다음과 같다.



연습

1. 녹음 내용에 따라 밑줄 친 음절의 첫 소리를 주의하면서 읽어 보세요.

학교 학생 식당 책상 국제  
 듣다 첫사랑 몇 시 늦잠 꽃집  
 덩다 답순 춥다 없다 반갑습니다

2. 보기처럼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읽어 보세요.



보기 A: 여기 학교에 다니십니까?

학교[학꾜]

B: 네, 여기 학생입니다.



A: \_\_\_\_\_

잡지[잡찌]

B: \_\_\_\_\_



A: \_\_\_\_\_

학생[학생] 카드

B: \_\_\_\_\_



A: \_\_\_\_\_

국밥[국뻬]

B: \_\_\_\_\_

#### 4) 응용단계

본고에서는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에 따라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재이므로 응용단계의 내용구성은 실제 상황에서도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해야 하고 학습자가 학습한 문형을 응용하도록 한다. 응용단계에서는 주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말하기의 형식으로 한다. 학습자들이 말을 시키면서 본 단원에서 공부한 문형뿐만 아니라 음운현상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교재 제1과 자기소개에서 학습한 문형 ‘N+입니다’와 음운현상 ‘경음화’의 응용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친구들 앞에서 ‘-입니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 국적, 나이, 직업을 소개해 보세요.



<그림 11> 통합교재 응용 단계 모형

<그림 11>에서 제시한 것처럼 먼저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을 주

고 ‘XX(이름)+입니다’, ‘학생입니다’ 등을 통해 ‘N+입니다’의 문형을 응용하는 동시에 ‘학생’처럼 ‘ㅅ→ㅆ’의 음운현상도 실제 발화에서 응용하도록 자극한다.

지금까지 통합교재에서 발음을 어휘와 연습, 응용 등으로 통합시킨 방식을 보여주었다. 언급한 발음을 통합교재로 통합시킨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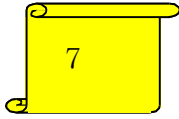
<표 21> 통합교재에서 발음내용과 다른 항목의 통합방식

준비(어휘, 발음, 문법)	음운현상의 도입 및 설명
↓	
본문대화	음운현상을 보여준 부분을 밑줄 친다.
↓	
문형 표현 제시	음운현상을 보여준 부분을 밑줄 친다.
↓	
발음연습	음운현상 연습 (따라 읽기)
↓	
문형연습	문형에서 음운현상이 나타난 부분 다르게 표시

#### 4.3.2. 실제 모형 및 발음 교육 내용 제시

위 4.3.1의 교재 구성 내용에 따라 본고에서는 총 10개 주제를 설정하였고, 각 주제는 관련된 대화로 이루어진 소단원 3개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3.2.2에서 제시된 서술 방안에 따라 통합교재의 실제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표16>에 따라 제7과의 모형만 제시하기로 한다.

제7과는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

- △ 실례지만 길 좀 물겠습니다.
- 목표: 길 묻기, 르-비음화
- 어휘: 길 묻기에 관한 어휘
- 문법: -으로1,
- 발음: 르-비음화
- 
- △ 지하철로 30 분 걸립니다.
- 목표: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 묻기
- 어휘: 교통수단 이용 관련 어휘
- 문법: -으로/로2, -에서~까지
- 발음: ㄴ-첨가
- 
- △ 꽃 가게 앞에 세워 주십시오.
- 목표: 직업 묻기
- 어휘: 택시 이용 관련 어휘
- 문법: ㄷ 동사, 르 동사
- 발음: 설측음화

제7과의 첫 단원 ‘실례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는 문법항목에서 ‘-으로1’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발음 항목에서는 ‘-르비음화’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소단원 ‘지하철로 30분 걸립니다’의 문법 항목에서는 ‘-으로/로2’와 ‘-에서/~까지’를 제시하고 있고, 발음 항목에서는 ‘ㄴ-첨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면의 제약이므로 본고는 교재의 실제 모형은 이 2개 소단원의 모형만 제시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발음 교육 내용의 제시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은 ‘실례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의 단원 모형이다.

## 실례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

어휘

		
실례	정리[정니]	강릉[강능]
		
정류장[정뉴장]	종로[종노]	음료수[음노수]

## 문법

### 1. -으로/-로<sub>1</sub>

명사 뒤에 쓰고, ‘가다. 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나가다, 나오다’ 등의 동사가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받침이 없거나 ‘ㄹ’로 끝난 명사 뒤에는 ‘-로’를 쓰고, 다른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는 ‘-으로’를 쓴다.

예)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로 갑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 발음

ㄹ-비음화

‘ㄹ’이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강릉[강능] 음력[음녁] 음료수[음뇨수] 정류장[정뉴장]

## 본문



A: 실례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

B: 어디에 가려고요?

A: 여기에서 강릉에 어떻게 가야 합니까?

B: 우선 15번 버스를 타서 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야 해요.

A: 15번 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어요?

B: 저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타면 돼요.

A: 감사합니다.

B: 별말씀을요.

## 표현

### ● 길 묻기

저, 실례합니다. 길 좀 묻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갑니까?

### ● 감사 표현하기

A: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 별말씀을요, 천만에요.

연습

- 녹음을 듣고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하여 읽어보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납시다. 강릉에 가려고요.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 보기처럼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읽어 보세요.



은행

보기 :A: 어디에 가려고 해요?

B: 지금 은행으로 가려고 해요



강릉[강능]

A: 주말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B: \_\_\_\_\_



음료수[음뇨수]

A: \_\_\_\_\_

B: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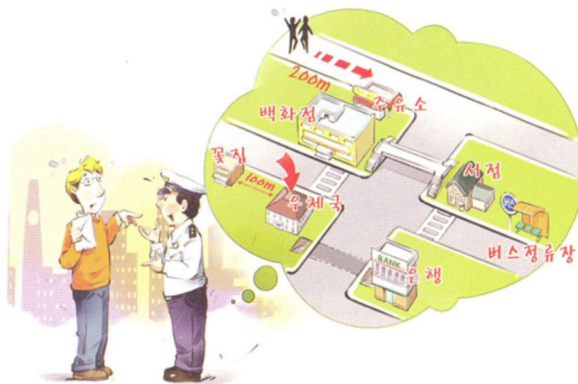
종로약국[종노약국]

A: \_\_\_\_\_

B: \_\_\_\_\_

활동

● 아래의 그림을 보고 ‘-(으)로’를 이용하여 서점, 버스정류장 등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주의하세요.)




교사가 이 모형에 따라 ‘ㄹ-비음화’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 ‘도입→설명→연습→응용’ 4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도입 단계는 ‘ㄹ-비음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강릉[강능], 정리[정니], 종로[종노])를 이용하여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음운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ㄹ-비음화’의 설명 단계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중국어의 ‘ㄱ+’의 연쇄에서 *zhengli*

(整理) /tʃʌŋli/에서 보듯이 /l/는 [n]으로 발음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습자들이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철자대로 읽는 오류를 피하도록 강조한다. 연습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ㄹ-비음화’를 연습하도록 연습문제에 단어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잘못 발음하면 바로 교정한다. 마지막 응용단계에서는 본 단원에서 배운 문법과 음운현상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다음은 ‘지하철로 30분 쯤 걸립니다’의 단원 모형이다.

## 지하철로 30분 쯤 걸립니다


어휘




강남역[강남녉]




신촌역[신촌녉]




집안일[지반닐]



지하철역[지하철력]



신혼여행[신혼녀행]



무슨요일[무슨뇨일]

문법

1. -으로/로₂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혹은 어떤 일의 수단과 도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버스로 왔습니다.

한국말로 말해보십시오.

2. -에서 -까지

어떤 일이나 상태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예) 여기서 종로까지 걷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5시간 걸립니다.

4층에서 5층까지 교실입니다.

발음

ㄴ-첨가

앞 단어에 받침이 있고 뒤에 오는 단어가 ‘이, 야, 여, 요, 유, 애, 예’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를 첨가하여 발음한다.

예) 무슨 일 [무슨닐] 신혼 여행[신혼녀행] 웬일[웬닐]

본문



A: 여기에서 신촌까지 얼마나 걸려요?

B: 지하철로 40분쯤 걸립니다.

A: 몇 호선을 타요?

B: 3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2호선을 갈아타서 신촌역에서 내리면 돼요.

A: 버스는 없어요?

B: 주말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A: 네, 감사합니다.

B: 별말씀이예요.

## 표현

### ● 지하철 이용 방법 말하기

이대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 ● 소요 시간 말하기

A: 종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B: 지하철로 30분쯤 걸려요.

### ● 녹음 내용에 따라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세요.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예요?

웬일이세요?

부산역까지 가면 몇 시간 걸려요?

연습

● 보기처럼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읽어 보세요.



지하철

보기 :A: 시청에 가면 얼마나 걸려요?

B: 지하철로 가면 30분 걸려요.



시내버스

A: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 얼마나 걸려요?

B: \_\_\_\_\_



비행기

A: 베트남에 가면 얼마나 걸려요?

B: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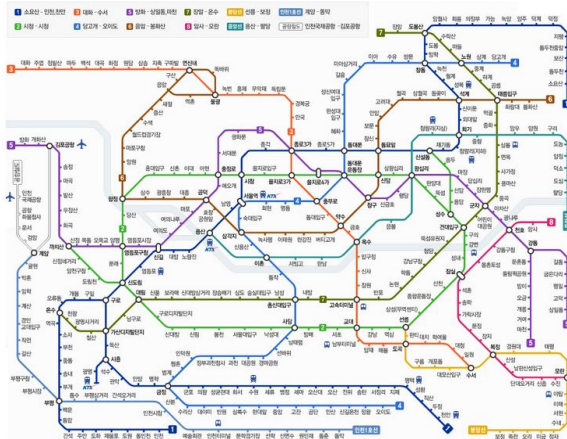


고속버스

A: 부산역에 가면 얼마나 걸려요?

B: \_\_\_\_\_

- 아래의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경복궁이나 신촌역, 이태원역 등에 어떻게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화해 보세요. (신촌역→[신촌녁]의 발음변화를 주의하세요)



- 대화를 듣고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두 사람의 신혼여행 어디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교사가 이 교재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휘 부분부터 강남역[강남녁], 집안일[지반닐], 신혼여행[신혼녀행] 등 단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ㄴ-첨가’가 일어나는 것을 외우도록 교육한다. 음운현상의 설명단계에는 학습자들에게 이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시한 후에 중국어에도 동일한 환경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비교하여 교육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도 ‘n-첨가’ 현상이 있

고, 중국어에서는 n로 끝나는 음절 뒤에 啊 a가 오면 [n]를 첨가하여(*tian a* 天啊 → [tʰanna])로 발음하는 현상도 같이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연습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ㄴ-첨가’ 현상을 연습하도록 연습문제에서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의 발음을 학습자들에게 강조하고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응용단계에서는 본 단원에서 배운 문법과 음운현상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유발해야 하고 이 부분에 학습자들이 발음이나 문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즉시 교정해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출간된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통합교재의 효과적인 발음 기술 방안이 반영된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한 후 교사가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음운현상을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제시하고 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한국어 발음지도와 한국어 교재(통합교재, 발음교재)의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발음 교육을 통합교재에서 분리해서 따라 지도하거나 발음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관점을 주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발음 교육을 어떻게 통합교재 내에서 기술할지에 초점을 둔 통합교재개발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

2장에서는 교사가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 음절구조, 음절유형, 음운현상 등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어의 단모음 ‘ㄱ, ㅋ, ㆁ. ㄴ’과 이중모음 ‘ㄷ, ㅌ, ㅃ, ㅍ, ㅅ, ㅆ’에 해당하는 음소는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 자음의 ‘평음-경음-격음’ 삼지적 대립이 존재하지만, 중국어 자음은 ‘유기음-무기음’ 이지적 대립만 있다. 한국어의 음절 말에 자음 발음은 7개 있지만 중국어 운미에 해당하는 자음이 2개뿐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음절 말 자음 발음에서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아주 다양한 반면 중국어의 음운현상은 종류도 적고 출현환경도 매우 제한적이다.

3장에서는 선정된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각 통합교재 음운 부분의 분석을 통하여 통합교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방법과 발성기관도의 제시가 없다.



둘째는 음절 구조의 유형 제시가 부분적이다. 셋째는 음절 말 자음(받침)에 대한 설명은 전면적이지 않고 음절 말의 자음 제약(받침제약) 때문에 야기된 말음중화, 연음화, 자음군 단순화 등 음운현상에 관한 설명이 없다. 넷째는 통합교재의 음운 현상에 관한 기술은 전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지적한 각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고에서 설정한 4단계(도입→설명→연습→응용) 언어 교육에 따라 새로운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입단계는 발음 기술은 어휘 부분으로 통합시켜 음운현상을 제시하는 단계이고, 설명단계는 문법 설명과 음운현상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음운현상의 설명에서는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연습 단계도 발음연습과 문형 연습으로 이루어지며, 문형 연습에서 학습자들의 발음에 주의를 일으키기 위하여 음운현상을 보여 주는 부분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응용 단계는 본 단원에서 배운 문법과 발음을 실제 상황에서 응용시키는 단계이다.

통합교재 모형을 제시한 후에 교사가 이 모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2장에서 논의했던 중국어와 한국어 음운론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발음을 설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음운현상과 동일한 환경인데도 중국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예를 중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하면 발음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국력’에서 보듯이 /C+l/은 ㄱ-비음화가 일어나서 /l/이 [n]이 되어 [국 녉]이 된 후 비음동화가 일어나서 [궁 녉]이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zhengli (整理) /tʂʌŋli/에서 /l/는 [n]이 되지 않으므로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는 한국어의 ‘국력’을 철자대로 [국력]으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재에서 ‘강릉’ [강능], ‘정리’ [정니], ‘정류장’ [정뉴장] 등을 가르칠 때 중국어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르친다. 또한, 한국어에서 /n+l/나 /l+n/은 설측음화가 일어나서 [ll] 이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ben lai(本來) /bənlai/에서 /n/는 [l]이 되지 않으므로 중국어 학습자 한국어의 설측음화 /l+n/나 /n+l/을 철자대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이 교재 모형을 이용할 때는 ‘설날’[설랄], ‘연령’[열령], ‘신라’ [실라] 등을 가르칠

때 중국어의 같은 음운환경을 보여주는 단어도 제시하여 이러한 음운현상을 주의하여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들이 두 언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절차대로 읽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급한 음운현상의 서술 방안에 따라 ‘ㄱ-비음화’와 ‘ㄴ-첨가’ 현상의 교재 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 방안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석진(2010),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중국어학』 36, 대한 중국학회, pp.1~29.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강혜근(2001), 漢語教學中所發生的聲調問題, 『중국어문학논집』 16, 중국어문학연구회, pp.295~326.
- 강희숙(2010),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도서출판
- 곡향봉(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수경(2003), 중국어 학습을 위한 언어 구사 단계별 한국어와 중국어 비교, 『언어와 언어교육』 18, 동아대학교 언어교육원, pp.115~139.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서울.
- 권미정(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기존 교재의 검토와 새 모델의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정(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기존 교재의 검토와 새 모델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의현(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단모음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훈(2010), 중국어 성조를 활용한 한국어 평음 경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수·송향근(2006),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pp.155~183.
- 김성란(2010),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음성학적 대조고찰,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p.34~58.
- 김소야(2006), 한국어 평음/경음/기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pp.57~79.
- 김알라(2008),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이(2011), 한국어 치조 마찰음 발음 교육 연구 :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2006), 한국어 교육 발음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 『우리말 연구』 18, 우리말학회, pp.237~260.
- 김은애 외3(2008),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1.
- 김정숙(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 선정 기준, 『제2차 한·중·조 Korean 교육 국제 학술 토론회 :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소, pp.1~2.
- 김정필, 김창경(2011), 중국어 음운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북아 문화연구』 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307~322.
- 김현숙(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복(2004),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연구, 『한국어 교육』 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41.
- 노금송(2000), 中國人을 對象으로 한 韓國語 發音 敎育,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뚜안무산(2005), 『표준중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 문연희(2002),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한,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5~60.
- 박기영(2009), 한국어 교재의 발음 기술에 대한 일고찰 음운현상과 정확성 유창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0, 이중언어학회, pp.57-78.
- 박기영(2010), 한국어 음운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일고찰, 『어문논집』 43, 중앙어문학회, pp.7~30.
- 박덕유 외 9인(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교육 연구』, 서울 박문사.
- 박숙희(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내용구성 방안,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

- 국어 교육학회, pp.169~188.
- 박윤정(2011),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 연구 : 모음 발음 분석과 교정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이주희(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분석과 개선방향연구, 『국어국문학』 150, 국어국문학회, pp.565~620.
- 박지연(2009),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연구 : 대화체 문장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원(2001), 한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 연세대학교 다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연(2007), 한국어 억양 발음 교육 -한·중 의문문 억양 곡선 비교를 중심으로, 『先淸語文』 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85~213.
- 박현선(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과 회화교수방안에 대한 제언, 『한중 인문학 연구』 24, 중·한인문과학연구회, pp.309~333.
- 방향옥(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종성 /ㅇ/의 발음 교육 방안, 『인문학연구』 3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389~410.
- 배재석, 서미령(2003), 한국인 화자의 중국어 의문문 억양 분석 연구, 『중국언어연구』 16, 한국중국언어학회, pp.445~476.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백소영(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지도방법, 『외국어교육연구』 22-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pp.77~88.
- 백소영(2010), 한국어 통합교재를 통한 발음 교육 고찰, 『시학과 언어학』 18, 시학과 언어학회 pp.119~138.
- 범류(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40, 이중언어학회, pp.79~108.
- 범류(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ㄹ’ 발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손경애(2009), 中國語圈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 發音 教育 方案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현(2005), 중국어 학습자의 情意的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향근(2011), 음운 이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pp.1~

27.

신정애(2005),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신호철(2003), 한국어 유음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중국어 모어화자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 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53~272.

양순임(2003),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국어 발음 교육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pp.223~238.

양순임(2004), 한국어 음절 초성의 발음 교육 방안,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pp.467~498.

양순임(2005), 한국어 음절 종성의 발음 교육,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pp.493~519.

양순임(2007),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 -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3~144.

엄태수(2010), ㄴ-첨가에 대한 표준어 규정의 연구,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pp.7~28.

여학봉(2009), 한·중 자음 대조를 통한 중국인 한국어 자음 발음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정은(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 발음 오류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단(200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 개발방안. 한국어 발음교재의 비교 분석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pp.183~210.

요외(200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용효엽(2011), 중국인 오·월방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사양(2011),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중국어 성조의 영향 : 동형 동의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사양, 김영주(2011),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상성의 영향, 『말소리와 음성과학』 3-2, 한국음성학회, pp.11~22.

- 유사양, 김영주(2011),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음평과 양평의 영향,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pp.36~47.
- 유재선(2006),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실현 양상 연구 : 고저(pitch)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2012), 중국인 초급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재 구성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해(2008), 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 연구,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pp.1~18.
- 이경(201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ㄱ/와 /ㄴ/ 발음 양상과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덕희(2003), 요구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향(2006),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pp.91~115.
- 이설동(2011),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된소리 발음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2003)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79~108.
-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향(200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2008),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09), 발음전략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효용성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장림(2008),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pp.211~228.
- 장향실(2008),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규칙 항목 선정연구,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학회, pp.137~158.
- 장향실(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pp.349~371.
- 장향실(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현상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pp.367~390.
- 전원해(2005),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 자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2003),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3~247.
- 정명숙(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 발음 교육,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pp.345~369.
- 정명숙(2011),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pp.423~451.
- 정명숙, 이경희(2000), 학습자 모국어의 변이음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효과,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51~167.
- 정철주(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연구』 18, 한국어언어연구학회, pp.33~65.
- 정효주·김영주(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pp.165~187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49~278.
- 최금단(2010), 중국어의 자음을 역으로 활용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의 발음 교정방법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259~287.

최은하 외2(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와 중국어 유사발음 비교 분석 및 발음 지도연구 - 폐쇄음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pp.355~383.

최지은(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pp.309~343.

최향란(2011),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오류 교정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미(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연구 : 실험음성학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경숙(2004), 몽골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성우(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우리말 글』 44, 우리말 학회, pp.165~194.

허용(1985),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용·김선정(2007),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허유라·박덕유(2012),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학회, pp.363~388.

홍종명(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비교 분석 연구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기하(2001), 중국어 발음 오류 분석 : 모음과 자음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한국어1.2, 문진미디어.

신라대학교 언어 교육원(2006), 톡톡 튀는 한국어1.2, 박이정 출판부.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연세한국어1.2,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부록1. 선정 한 통합교재안의 음운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의 통계

서울대(2012)

음운현상	단어	합계
말음중화	이것, 저것, 꽃, 옆, 몇 시, 찻값,	7
연음화	이것은, 저것은, 무엇입니까, 옆에는, 없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의 친구, 앉으세요, 먹읍시다. 넷이에요, 싫어해서, 들으면서, 창밖의 산, 걸읍시다. 걸으면서, 없었어요, 찻값을	18
자음군단순화	읽습니다. 앉습니다. 여덟 시, 찻값	4
경음화1	책상, 반갑습니다. 대학교, 학생,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복잡합니다, 몇 시, 여덟 시, 잡쉬 보세요, 책방	12
경음화2	앉습니다. 앓다	2
경음화3	할 거예요 널 게	1
비음동화	한국말, 몇 명, 샀는데, 끝납니다. 끝내고,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쉽니다. 26일, 축하합니다. 도착합니다.	17
ㄹ-비음화	정류장, 종로	2
유기음화	어떻게, 그렇지만 외국 학생, 따뜻합니다. 복잡하니까, 백화점, 축하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잘 못해요	9
설측음화	신 <b>림</b> 동	1
구개음화	같이	1
ㄴ-첨가	26일 무슨 요일	2

연세대(2007)

음운현상	단어	합계
말음중화	감, 있다, 곳, 그릇, 꽃, 왔습니다, 옆	11
연음화	갈아타다, 검은색, 계획을, 계획이, 구름이, 귀걸이, 금요일, 길이, 놀이공원, 눈이 그치다, 단어, 독일, 돌아가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때문에, 떡볶이, 맛있다, 목걸이, 목요일, 바람이, 불이, 볶음밥, 설악산, 싫어 하다, 옷걸이, 외할아버지	28
자음군단순화	값, 없다, 넓다, 많이, 얇다	5
경음화1	가깝다. 가볍다, 걱정하다, 건다, 국수, 국적, 국제전화, 귀엽다, 극장, 기숙사, 깎다, 꽃가게, 낚시, 학생, 고속버스, 닦다, 대학교, 더럽다, 덩다, 독서, 돕다, 맵다, 반갑습니다, 받다. 복잡하다, 숙박, 숙제,	27
경음화2	많습니다, 얇습니다, 앓다	3
경음화3	울 것 같아요, 울 수 없다/있다, 울 거예요, 울 게요	5
비음동화1	맞는 표현, 안녕하십니까, 리에입니다. 끝나다, 한국말	5
ㄹ-비음화	강릉	1
유기음화	어떻게, 괜찮다, 그렇다, 까맣다, 끊다, 도착하다, 따뜻하다, 많다, 백화점, 복잡하다, 법학, 빨갳다, 식혜, 예약하다,	15
설측음화	지하철 역, 서울역, 설날 실내, 연락	5
구개음화1	같이	1
ㅎ-탈락	좋아하다	1
ㄴ-첨가	지하철 역, 서울 역 신혼여행	3

이화여대(2010)

음운현상	단어	합계
말음중화	그것, 꽃, 낮잠, 덮다, 뒷문, 몇, 무엇, 밑, 바닷가, 옆, 부엌, 알겠다, 앞, 옷, 저것, 깨끗하다, 다른 것, 맛, 맷돌, 빛, 씻다, 옆방, 옛, 젖다, 찻집, 맛다	28
연음화	거짓말을, 놀이기구, 돈을, 맞은편, 멋있다, 반짝이다, 사진, 설악산, 싫어하다, 아침을, 앞으로, 옷걸이, 음악, 일본어, 일어나다, 일어서다, 잠을 자다, 중국어, 집안일, 학원, 한국어, 할아버지, 계획을, 관심이, 금연석, 길이, 깎아주다, 끊임없다, 넘어가다, 대학원, 돌아가다, 등산을, 때문에, 매진이다, 목욕을, 확인하다, 물론이다, 바람이, 밥을 하다, 졸업하다, 짐을, 촛불을, 춤을	43
자음군단순화	닭다, 맑다, 많다, 앓다, 없다, 읽다, 넓다, 얇다, 별일이 없다	11
경음화1	가깝다, 경복궁, 고등학교, 고맙다, 기숙사, 낮잠, 덮다, 덮다, 바닷가, 반갑다, 벽시계, 봄 학기, 짝다, 설악산, 세탁실, 숙제, 식당, 식사, 오류도, 옷걸이, 욕실, 작다, 재미있다, 전깃줄, 졸업식, 중학교, 직장, 책상, 탁자, 통역사, 학교, 학생, 곳감, 극장, 꽃다발, 꽃바구니, 넓다, 덥다, 뜨겁다, 맛집, 맛다, 맵다, 맷돌, 목걸이, 목도리, 무섭다, 목다, 묻다, 부럽다, 새롭다, 씻다, 악기, 아름답다, 액세서리, 액자, 얇다, 역사 엮서, 잡지, 장학금, 유적지, 단다, 젖다, 학기, 춥다, 합격	79
경음화2	닭다, 앓다, 가라앉다	3

경음화3		0
비음동화	학년 거짓말, 끝나다. 뒷문, 박물관, 옛날, 한국요리, 국내, 사진 찍는 것, 유럽여행, 음식물, 깜짝 놀라다	14
ㄹ-비음화	중략, 동료, 강릉, 대통령, 정류장, 속리산, 십리, 원룸, 음료수, 정리	10
유기음화	대답하다. 그렇지만, 도착하다, 못하다. 무역회사, 백화점, 법학, 산책하다, 어떻게, 어떻다, 많다, 기억하다, 넣다, 좋다, 따뜻하다, 똑똑하다, 묻히다, 북한산, 연락하다, 예약하다, 저축하다, 끊다, 졸업하다, 착하다, 축하, 편찮다, 한국학, 합격하다	32
설측음화	갈잎, 지하철역, 한라산, 별일, 연락처, 설날, 종로	7
구개음화1	같이	1
ㅎ-탈락	좋아하다. 싫어하다	2
ㄴ-첨가	길잎, 무슨 요일, 무슨 일, 지하철역, 집안일, 한국요리, 유럽여행, 신혼여행, 시청역, 강남역	11

신라대(2006)

음운현상	단어	합계
말음중화	몇, 따뜻하다, 재미있다,	5
연음화	한국어, 음악, 일어나다, 돌아오다, 졸업, 직원, 갈아타다, 확인, 외국인	11
자음군 단순화	앉다, 앉고, 맑다, 읽다, 없다	5

경음화1	학생, 학교, 수업시간, 숙제. 박수, 춥다, 대학교, 어렵다, 재미있다, 책상, 육교, 듣다, 학생, 잇다, 약국, 깎다, 백 반, 찍다, 돕다, 집들이, 식사,	24
경음화2	앉다, 신분증, 앓고,	3
경음화3		0
비음동화	학년, 장년, 한국말, 옛날	4
ㄹ-비음화	등산로,	2
유기음화	어떻게, 따뜻하다, 무역회사, 취직하다, 많다, 복잡하다, 많다, 도착하다, 식후, 예약하다, 축하하다,	10
설측음화	관련, 연락처	2
구개음화1	같이,	1
ㅎ-탈락	좋아하다,	1
ㄴ-첨가	무슨요일, 지하철 역	2

부록2: 통합교재의 구성

단원	제목	소재목	과제	본문 내용			연습활동		
				어휘	문법 항목	발음	발음연습	문형연습	듣기연습
예비	한자모	모음	모음익기	단모음과 이중모음만 있는 단어	V, GV, VG,	모음의 발음	모음 읽기	-	듣고 고르기
		글	자음	자음과 모음이 있는 단어	CV, CGV, CVG,	자음의	자음읽기	-	듣고 고르기
		받침	받침	받침 있는 단어 제시	VC,GVC, CVC, CGVC, CVGC	말음중화 연습화 자음군단순화	단어 읽기	-	듣고 고르기
		음운현상	-	-	-	-	-	-	-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이름말하기	인사어휘 신분어휘	-입니다 -은/는	경음화[ 학교[학교]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듣고 대답하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 묻기	나라어휘	이/가 아닙니다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듣고 대답하기
		첫 수업이 끝납니다.	행동 묻기	식사어휘	-습니다/ 습니까	비음동화 입니다 [입니다]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듣고 대답하기
2	학교와 집	학교생활이 어때요?	학교생활 말하기	학교생활 관련어휘	이/가	유기음화 어떻게 [어떠타]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듣기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시설 말하기	장소명사 위치관련 어휘	-에 있다 /없다	말음중화 있다[있따]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장소위치에 관한 대화
		집이 어디입니까	장소위치 설명하기	장소이름	-하고- -(으)로		따라 읽기	문장 만 들기	집 소개의 글 듣기

단원	제목	소제목	과제	본문 내용			연습활동		
				어휘	문법 항목	발음	발음연습	문형연습	듣기연습
3	가족과 친구	가족이 몇 명입니까	가족 소개	가족 명칭 초대어휘 수사1	-(으)시- -르동사	구개음화 같이[가치]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가족에 관한 문장 듣기
		공기도 좋고 조롭습니다	고향에 관한 이야기	형용사	-고-	유기음화 어떻게[어떠케]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고향에 관한 문장 듣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웁니다	친구에 관한 이야기	전공 관련 어휘	-을/를 -에서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 듣기
4	음식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가다/오다 음식 종류	-에 가다/오다 -지 않다 무슨	ㅎ-탈락 좋아하다[조아하다]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대화 듣기
		저는 불고기를 먹고 싶다	음식 고르기	음식 이름	-고 싶다 -겠-	구개음화 같이[가치]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식당 안의 대화 듣기
		여기 물 좀 주십시오	음식 주문하기	음식 관련 양사 수사2	-(으)십시오 -을까요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식당 안의 주문 대화 듣기
5	하루 일과	몇 시에 일어나요	시간 말하기	시간 명사	-부터-까지 -어요체	경음화1 몇 시[몇 씨]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시간에 관한 대화 듣기
		오늘 몇 월 몇 일이에요	날짜와 요일 말하기	날짜, 요일	-지요 -(으)세요	ㄴ-첨가 무슨요일[무슨요일] 수자의 읽기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날짜와 요일에 관한 대화듣기
		친구 하고 무엇을 했어요	과거 행동 말하기	시간 관련 어휘	-었- -비 동사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어제 한 일에 관한 단문 듣기



단원	제목	소제목	과제	본문 내용			연습활동		
				어휘	문법 항목	발음	발음연습	문형연습	듣기연습
6	물건 사기	선물을 사러 갑시다	물건 사기	가게 이름 물건 이름	-으 로 가다 -와/과	연음화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선물에 관한 단문 듣기
		좋지만 좀 비싸요	물건 질과 크기 말하기 값 묻기	형용사(질과 크기 관련) 단위 명사	-지만 ㅎ 동사 -어주다	유기음화 그렇지만[그러치만]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물건 사기에 관한 단문 듣기
		값이 싸요	값이 행정하기	선물 관련 어휘	-에게 관형사 용어미(은/는/을)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가격 흥정에 관한 단문 듣기
7	교통	실례하지만 길 좀 묻겠습니다	위치, 길 묻기	위치 관련 어휘	-으로1 -어서	ㄹ 비음화 강릉[강능]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지하철로 30분 걸립니다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 묻기	교통 수단 관련 어휘	-으로2 -에서 ~ 까지	ㄴ-첨가 강남 역[강남녘]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꽃 가게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 이용하기	택시 이용 관련 어휘	ㄷ 동사 르 동사	설측음화 서울역[서울 력]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8	전화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전화번호 묻기	전화 관련 어휘	-ㄹ 게요 -이나	'처, 저'의 발음 [처, 저]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늦으면 전화할게요	전화로 약속하기	약속 관련 어휘	-에게서 -으면	경음화2 안대[안따]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웨이씨 좀 바꿔주세요	전화상태 바꿔달라고	전화 관련 어휘	-을 거예요 만 -(은)는 데요	경음화3 -ㄹ 거예요[ㄹ 거예요]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단원	제목	소제목	과제	본문 내용			연습활동		
				어휘	문법 항목	발음	발음연습	문형연습	듣기연습
9	날씨와 계절	저는 스키를 탈 수 있는 겨울이 좋아요	좋아하는 계절의 이야기	계절에 관한 어휘	-(은)는 데 -을 수 있다	비음동화 ㄷ + ㄹ → ㄹ + ㄹ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날씨가 좀 흐린데요	오늘 날씨 말하기	날씨 관련 어휘	-은 후 -보다 -을 것 같다	경음화3 ( ㄹ ㄹ ㄷ ㄷ ) 것이다 → 을 것이다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	계절 활동 말하기	계절 활동 관련 어휘	-는 군요 -고 있다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10	휴일과 방학	설악산에 가려고 해요	계획 말하기	계획 관련 어휘	-으려고 하다 동안	비음동화 ㄱ + ㄹ → ㅇ + ㄹ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시간이 있을 때 여행을 가요	취미 말하기	여행 관련 어휘	-을 때 -중에서 ~제일 못	경음화 4 (여권)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산책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주말 활동 이야기	운동 관련 어휘	-기 전에 -지 못하다		따라 읽기	문장 만들기	문장 듣고 대답하기

(국문요약)

##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기술 분석 및 교육내용 개선 방안

###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하관정

지도교수: 강옥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주로 통합교재로 학습하고 있지만 통합교재의 특성상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철**자대로 읽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잘 모르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통합교재에서 발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출간된 범용 한국어 통합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통합교재의 효과적인 발음 기술 방안이 반영된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한 후 교사가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음운현상을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4장을 걸쳐서 연구하기로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제시하고 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교사가 통합교재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시할 한국어

와 중국어의 음운체계, 음절구조, 음절유형, 음운현상 등을 비교하였다. 4장에서 한국어 교사가 이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가지 통합교재가 발음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지적한 각 통합교재의 발음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4단계(도입→설명→연습→응용) 언어 교육에 따라 새로운 통합교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 제시된 교재의 모형은 현존 교재와 가장 큰 차이점을 음운현상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이 내용을 어휘, 문법, 연습 등으로 통합시키는 점이다. 통합교재 모형을 제시한 후에 교사가 이 모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에게 2장에서 논의했던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발음을 설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음운현상과 동일한 환경인데도 중국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l/이 [n]으로 즉, ‘ㄹ-비음화’ 현상이 있다. 한국어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때 학습자들이 모국어와의 차이점을 즉, 중국어 단어 *zhengli* (整理) /tʂʌŋli/에서 /l/이 /ŋ/뒤에 나타나도 [n]이 되지 않지만 한국어 단어 ‘정류장/čəŋ+lju+čəŋ/’에서 /l/이 /ŋ/뒤에 오면 [n]이 되는 점을 인식시키면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철자대로 읽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교재의 모형과 음운현상의 교육방안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그리고 본고는 한국어 음운현상을 통합교재에 통합하는 데에 중심을 두어서 음운 내용을 다루는 ‘예비편’의 교재 모형까지 제시하지 못하므로 미흡하지만 본고에서 제시된 음운현상을 다루는 교재 모형과 이 모형을 활용한 음운현상의 교육방안은 조금이라도 중국인 학습자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	학 번	2011772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하관정	한문 賀寬靜	영문 HEKUANJING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517번지 302호				
연락처	e-mail : hekuanjing77@yahoo.cn				
논문제목	한글: 한국어 통합교재의 발음기술 분석 및 교육내용 개선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영문: An Analysis on Presenting Pronunciation in Korean Integrated Textbooks and Educational Contents Proposal -focused on Chinese Korean Learner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13 년 6 월

저작자 : 하관정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